소년단

1963. 7

즐거운 야영 생활

조국의 명승지인 아름다운 동해 바다'가 속후와 송도원 그리고 견룡 호수가에 설치된 석암 야영소에서는 해마다 여름이면 소년단원들의 즐거운 야영 생활이 벌어진다.

올해도 이 곳 석암 야영소들에서는 공화국 각지에서 모여 온 모범 소년단원들이 즐거운 여름의 한때를 보내고 있다.

사회주의 조국의 품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야영을 즐기는이들의 구리'빛 얼굴마다에는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 없이 배우며 즐기는 기쁨과 행복이 어려 있다.

조국의 산야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가! 견룡호에서의 즐거운 배'놀이.

야영소에서 영웅 언니와 만나는 것은 얼마나 뜻 깊은 일인가! 공화국 영웅 김 정순 언니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야영생들.

《누가 더 많이 꿰는가?》 야영소 앞뜰에서는 고리 꿰기 놀음이 한창이다.

운동장에서 하는 축구 경기에 못지 않게 즐거운 탁상 축구 놀음의 한때.

즐거운 무용 시간이 오면 이들은 체육 무용 련습에 여념이 없다.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63년 7호 내용

김일성 원수님의 창덕학교시절

제 4 회

강 효 순

그림 최 순 천

(4)

원수님이 만경대에 도착하기는 팔도구에서 떠난지 13 일만이였습니다. 대동강을 에돌아 우뚝 솟은 만경봉이 보이자 원수님은 큰 소리로 고함이라도 치고 싶었습니다. 마을 뒤 언덕을 썩 넘어 서자 그립던 고향 마을인 안동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원수님은 잠간 발'걸음을 멈추고 감격에 넘쳐 흐르는 심정으로 마을을 바라 보았습니다. 10 호 되나 마나 한 적은 마을이였지만 아주 아늑한 마을이였습니다. 어려서 놀던 놀음터들이니, 거닐던 길들이니, 동무들과 함께 오르내리던 산과 나무들이 한눈에 안겨 왔습니다.

원수님은 할아버지네 집을 향하여 달음질 쳤습니다. 정말 발이 땅에 닿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던 것도 다리 아프던 생각도 천리, 만리로 달아 났습니다. 어느덧 원수님은 오매에도 잊지 못 하던 할아버지네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원수님은 큰 소리로 부르며 사립문 안으로 뛰여 들어 갔습니다.

뜻밖에도 원수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는 바람에 방안에서는 깜짝 놀라 문을 활짝 열어 제쳤습니다.

《이게 누구냐? 우리 증손이가 아니냐?!》 하며 할머니는 버선발로 뛰여 나와 두 팔을 벌리고 원수님을 가슴에 꼭 부여안았습니다. 그 뒤로 할아버지, 삼촌 아버지, 삼촌 어머니들이 뛰여 나왔습니다. 그 순간 원수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쏙 나왔습니다.

자나 깨나 그립던 할머니와 할아버지, 삼촌 아버지와 삼촌 어머니 그리고 사촌들을 만나 끝없이 기뻐해야겠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웠습니다.

만 7 년 동안 원수님은 그 어느 한때도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넓고 따뜻한 사랑의 품을 잊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래 동안 서로 몸은 헤여져 있었으나 사랑과 정은 한날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던 얼굴, 하고 싶던 말 그리고 제 나라를 빼앗기고 이국 땅으로 쫓겨 난 사람으로 가지가지의 서글프던 일들이 한꺼번에 눈물로 폭발된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였습니다. 헤여져 있는 동안에 원수님은 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머리 속에 그려 보군 했습니다. 그 때마다 원수님의 머리 속에는 7 년 전의 모습이 떠오르군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얼굴은 원수님이 줄곧 머리 속에 그리던 그 모습과는 달리 엄청나게 늙은 모습이였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두 무척 늙으셨구나. 원쑤놈들 때문에 고생해서 더 늙으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원수님의 눈앞은 캄캄해졌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 것은 원수님 뿐만은 아니였습니다. 할머니도 그립던 원수님을 부여안고 눈물을 흘렸으며 삼촌 어머니도 치마'자락으로 눈물을 씻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로도 눈물이 흘러 내렸고 원수님이 허리를 굽혀 절을 할 때 삼촌 아버지도 입술을 실룩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지난날에 천대 받고 멸시 받던 서글픔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던 것입니다.

김 선생이 만주로 망명하게 되자 놈들은 눈이 벌컥 뒤집혀 할아버지, 할머니를 붙들어 간다, 가택 수색을 한다, 야단 법석이였습니다. 개발 같은 신발을 벗지도 않고 방안에 마구 뛰여 들어 와서 천장을 쑤셔 보기도 하고 뒤주를 벌컥 뒤져 보기도 한때가 한두 번이 아니였습니다.

놈들은 풋밤 바구니에 새앙쥐 드나들듯 한 달에도 몇 번씩 와서 아들이 어디 갔느냐, 무슨 편지가 왔느냐, 아들이 보낸 사람이 언제 왔댔느냐 하며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입에서 놈들은 쬐물만한 트집이나 비밀을 찾아 낼 수 없었습니다.

놈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협도 해 보고 때로는 얼려도 보았습니다.

때문에 어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으며 다리를 펴고 주무실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네 온 가족은 놈들의

발악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굳게 마음을 다졌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우면서 그 날 그 날을 보냈습니다. 오로지 일구월심 생각하는 것은 아들이 조선 독립을 위하여 용감히 싸워 승리할 것만을 축원할 뿐이였습니다.

지난날의 이러한 쓰라린 생활을 겪어 오다가 원수님을 만나니 그들은 반가움과 서글픔이 한데 엉키여 눈물들이 쏟아진 것입니다.

《밖에서 그러구들만 있겠나, 어서 들어들 가지!》

할아버지의 말씀이였습니다.

《들어 가자!》

할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모두들 방으로 들어 갔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문'지방에 이마를 부딪칠 작은 오막살이 초가였습니다. 그러나 원수님은 고향 집이라 퍽 정다왔습니다.

《그래 너 혼자 오는 거냐.》

하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원수님은 모자를 벗어 벽에 걸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모들두 용하다. 천리'길을 그래 어린것 혼자 보내구 맘이 놓더란 말인가?》

할아버지는 담배를 실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이 뭐가 멀다구 그러서요, 조선 땅 절반두 못 되는데요.》

원수님도 처음 팔도구를 떠날 때에는 천리'길이 대체 얼마나 먼 길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정작 걸어 보니 그리 먼 길 같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네 집이 만일에 부산에 있었더라면 그 곳까지도 문제없이 걸을 수 있는 자신까지 생겼던 것입니다.

《하기는 네 말이 옳다. 남아 15 세 대장부라구! 천리'길을 멀게 생각해서야 쓰겠냐.》

할아버지는 사랑에 찬 시선으로 원수님을 바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원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노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비범하여 장차 큰 사람이 될 것을 알았으며 또 큰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원수님이 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간 후에도 할아버지는 원수님에 대한 생각을 어느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련히 아들을 잘 교양하리라고는 생각하면서도 나라의 큰'일을 위하여 주야 분투하는 아들이라 혹시나 원수님에 대한 보살핌을 소홀히 하지나 않을가 생각하여 못내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 세살 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찾아 온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흐뭇했던 것입니다.

(역시 제 아비, 어미를 닮았으니까 그럴만두 하지!)

할아버지는 혼자 머리를 끄덕이셨습니다.

원수님은 삿자리에 앉으며 방안을 둘러 보았습니다. 방안에는 빨간 뒤주가 놓여 있었고 그 우에는 얇은 이부자리가 있을 뿐 별로 눈에 띄우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래'방 뒤'문 쪽으로는 물레가 놓여 있고 웃방에는 멍석 틀던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원수님은 그것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일'감이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동생들은 잘들 노냐?》

하고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잘들 놀아요.》

《어머니두 편안하시구?》

《어머니는 늘 가슴앓이루 앓구 계서요. 어머니두 그렇지만 아버지 때문에 걱정이야요.》

원수님의 대답은 퍽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방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누구의 소식보다도 아들의 소식을 먼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몸으로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는 아들의 안부에 대해서는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몸이 부었다 낫았다 하는데 아무래두 오래 사실 것 같지 않아요.》

원수님은 목메인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님의 가족이 중국으로 들어 가기 전이였습니다. 김 선생은 놈들에게 붙들려 가서 무참한 고문을 받고 생명까지 위급하게 되였습니다. 놈들은 어차피 죽을 사람으로 단정하고 가출옥이라는 명목으로 석방했던 것입니다. 석방은 되였으나 김 선생은 평양서 만경대까지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조차 없게 되였습니다.

아들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단숨으로 형무소 앞까지 달려 갔습니다. 뼈만 남아 앙상해졌고 온 몸에 상처를 입은 아들을 보자 할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김 선생이 돌아 오시자 강 반석 녀사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성심 성의로 간호해 드렸습니다. 좋다는 약이란 모두 구해다 드렸고 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 다니면서 약을 구해다 드렸습니다. 살림은 어렵고 약값은 엄청나게 비싸서 돈을 마련할 길이 막연하였습니다.

어느 날 녀사는 의롱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의롱 밑에서 바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종이로 여러 번 싼 바리였습니다. 그는 종이를 조심히 풀어 헤치고 바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름이 철철 흐르는듯한 다리 한 쌍이 있었습니다. 원수님의 외조모께서 딸에게 주려고 긴 머리를 가끔 쪄서 오리오리 모아 두었다가 녀사께서 시집 올 때에 다리를 무어 준 것입니다. 녀사는 이 다리를 아끼고 아껴 좀처럼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다리라두 팔아서 약을 사오게 하자요.》

녀사는 할머니 앞에 종이에 싼 다리를 내놓았습니다.

《아니, 더려두 보지 않은 다리를 없애서 어쩌겠니.》

《사람이 귀하지 그까짓 물건이 귀하겠어요? 세월만 좋아진다면 그것쯤은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게 아니야요?》

다리꾸러미를 들고 있던 할머니의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날 다리를 가지고 시내로 들어 가서 12 원을 받고 팔아 왔습니다. 이 돈으로 약을 더 구해 올 수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구환한 효과가 있어 김 선생의 병은 차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은 약간 거신하게 되자 그 대로 누어 병치료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동지들을 만나 독립 운동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독립하지 못 할 바에야 살아서 무엇 하겠는가, 내 몸이 찢기여 가루가 될지언정 왜놈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 내가 싸우다가 실패하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가 실

패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독립해야 한다.》

김 선생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김 선생의 몸이 차차 회복되게 되자 놈들의 눈초리는 다시 선생에게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은 뻔질나게 만경대를 찾아 들었습니다. 김 선생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는 날로 심해 갔습니다.

놈들의 생각으로는 출옥하자 곧 돌아가실 것으로 알았는데 몸이 차차 회복되게 되니 그 대로 둘 리 없었습니다.

놈들의 심'보를 잘 알고 있는 김 선생은 완쾌를 기다릴 여유도 없이 만경대를 떠나 북쪽으로 몸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난 다음 김 선생은 쥐도 새도 모르게 만경대로 와서 부인과 아들들을 데리고 중강진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 갔던 것입니다.

《변소 출입두 제대로 못 하던 몸으로 떠났는데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게 천명이지!》

하고 할아버지가 말씀했습니다.

《천하의 악독한 놈들이지! 글쎄 네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다구 그 꼴을 만들었겠니.》하며 할머니는 치마'자락으로 눈물을 씻는 것이였습니다.

《물은 제 곬으로 흐르는 법이니라! 제 놈들이 아무리 기승스럽게 굴어두 몇 조금 못 가지!》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였습니다.

이 때에 삼촌 어머니가 소랭이에 물을 떠 가지고 들어 오셨습니다.

《세수하구 발 씻어라, 글쎄 그 먼 길을 혼자서 오다니 용키두 하지!》

《작은 어머니두 참! 물을 방으로 떠 들여 올 게 뭐야요. 우물에 나가서 씻으면 되겠는데요.》

원수님은 성큼 일어 나며 소랭이를 넝큼 받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씻으려무나.》

《방에서 어떻게 세수를 해요.》

원수님은 저고리와 버선을 벗어 놓고 세수도 하고 발도 씻었습니다.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원수님은 수건으로 얼굴과 손을 문지르며 방으로 들어 왔습니다. 수건으로 종아리에 묻은 물'방울을 씻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원수님의 다리를 만져 보시면서 무척 대견해 하셨습니다.

《참 네 다리는 무쇠 다리구나! 글쎄 그 먼 길을 어떻게 걸어 왔니.》

하며 혀를 챘습니다.

원수님은 말 없이 씩 웃고 말았습니다.

《먼 길을 혼자 오기 무섭지 않더냐?》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잘못 한 일이 있어야 무섭지 버젓한 길을 걷는데 무서울 게 뭐야요.》

《나두 젊어서 길을 떠그나 걸었다만은 범이 무서우니, 승냥이가 무서우니 해두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야.》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자 원수님의 머리에는 개고개 부근에서 만났던 한 사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옳아요. 나두 오다가 한 번 헌놈을 만났댔어요. 아마 그 놈은 내가 평양까지 간다니까 돈량이라두 조이 가지고 오는 줄로 알고 치훑고 내리훑더니 자기와 같이 주인을 정하자구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니?》

《자판을 보니까 그 놈하구 같이 가다가는 좋지 않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 친구가 이 근처에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자겠다구 말하면서 슬쩍 다른 골목으로 빠져 나갔지요.》

《정말 천리'길을 걷는 동안에 별별 구경 다 했겠구나.》

하고 삼촌 어머니가 말 참견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봤어요.》

원수님은 오면서 보고 들은 것들 중에서 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세 진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원수님은 보자기를 헤쳤습니다.

《그건 뭐냐?》하며 할머니가 들여다 보셨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선물이야요. 이건 할머니 저고리, 이건 할아버지 조끼 그리구 이건 할아버지 주머니, 이건 작은 아버지 버선 그리구 이건 작은 어머니 건데 뭔지 알아 맞혀 보세요.》하며 종이에 싼 것을

줌 안에 꼭 쥐였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싱글벙글 웃을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글쎄 그게 뭐냐? 작은 어머니 선물이 제일 작구나.》

《작아두 후추알이야요. 그래두 모르겠어요.》

원수님은 삼촌 어머니를 바라 보았습니다.

삼촌 어머니는 뒤통수를 쓱쓱 긁을 뿐 역시 입을 떼지 못 했습니다.

《자 보세요.》

원수님은 종이 꾸러미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가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야!》

삼촌 어머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환성을 올렸습니다.

삼촌 어머니는 가락지를 받아 무명지에 끼였습니다. 꼭 맞았습니다.

《내 손에 가락지를 다 끼구 가락지가 울지 않을가?》

삼촌 어머니는 싱긋 웃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림두 어렵겠는데 웬 걸 그렇게 많이 해 보냈노.》

삼촌 아버지도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님은 안 주머니에 넣었던 돈 지갑을 꺼내서 거기에 있던 돈을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로비로 쓰라고 아버지께서 준 돈을 절반도 쓰지 않았습니다.

《잘 건사했다가 갈 때 보태 쓰도록 해라.》하며 할아버지는 받은 돈을 선반 모서리에 든든히 건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나 놀다 가겠니? 모처럼 왔는데 푹 쉬여 가렴아.》

하고 할머니가 말씀했습니다.

《할머니 여기루 공부하러 왔어요.》

《공부하러? 그럼 남명 학교에 다니겠니?》

《칠골 외가에 가서 창덕 학교에 다니겠어요.》

《야 그것 참 잘 됐구나, 그럼 외가에 들려 왔냐?》

《들려 오지는 않았어두 내가 올 걸 아시구 계실 거야요.》

《편지를 띄웠니?》

《아버지가 지난 겨울에 조선에 나오셨던 길에 외가에 피뜩 들려서 그렇게 토의하셨나 봐요.》

《아버지가 칠골에 왔댔다구?》

할머니는 깜짝 놀라는 것이였습니다. 할머니만 아니라 모두 눈이 둥굴해졌습니다.

사실 지난 겨울에 김 선생은 조선에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독립 운동을 더 확대하기 위하여 동지들을 규합하는 일과 군자금을 모아 가기 위하여 나왔던 것입니다.

김 선생이 조선에 나오기 직전에 원수님의 큰 외숙 강 진석 선생이 조선에 나와서 놈들에게 체포되였던 것입니다.

강 진석 선생은 매부되는 김 형직 선생의 영향을 받아 혁명의 길에 나섰습니다. 김 선생이 가출옥으로 형무소에서 나온 후에 그들은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립 운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선 청년단을 조직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 군들과 황해도에까지 청년단 조직망이 확장되였습니다. 김 선생은 중국으로 망명한 후에 계속 청년단과 련계를 가졌습니다. 청년단 사업은 매우 활발히 전개되였습니다.

얼마 후에 3.1 운동이 폭발되였습니다. 강 진석 선생은 3.1 운동의 선두에서 용감히 싸웠습니다. 놈들은 강 진석 선생을 체포하기 위하여 마수를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리하여 선생도 국내에서 활동하기 곤난하게 되여 중국으로 망명하게 되였습니다.

그는 세 차례나 조선에 건너 와서 공작하고 네 번째 다시 건너 왔던 것입니다. 그의 공작 지역은 평양과 황해도 일대였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시)

김 병 두

잠 들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우등'불'가에 모아 앉아
청봉의 수림 우에
둥둥 떠가는 달을 바라 보노라면

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싸움의 길 몇 만 리를 돌아
강 건너 온 빨찌산 아저씨들
어머니 조국의 크나큰 품에 안겨
잠 들지 못 하였다오.

끝없이 깊은 밀림의 바다를 뚫고
눈보라 우는 산'발을 수 없이 넘어
바위 이끼를 때로 랑식으로 삼으면서
고난의 100 일 행군을 거쳐
조국의 품에 안긴 빨찌산 아저씨들
어찌 잠 들 수 있었겠어요.

《원쑤 일제놈을 반대하여 싸우자!》
나무에 글'발을 새겨 넣으며
멸적의 투지를 더욱 돋구던 마음들
최후 승리의 오늘을 굳게 믿으며
고난도 피곤도 다 잊었다오.

아, 달은 더 높이 솟아 오르고
우등'불은 더욱 활활 타 오르는데
빨찌산 아저씨들의 그 마음
우리의 가슴에 달'빛처럼 흘러 드는데

달은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토록 조국을 사랑한
빨찌산 아저씨들의 그 마음
오늘은 이 땅에 웃음과 노래가 되고
행복의 궁전이 되였음을 잊지 말라고…

—황남 재령군 재천 중학교 단 제 8 분단 박 명 선 동무에 대한 이야기—

본사 기자 조 병 권

밤이 깊었다. 책상 앞에 마주 앉은 명선이는 공부에 정신이 팔려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인젠 그만 자구 래일 또 하려무나.》

어머니는 벌써 두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어머니, 오늘 공부를 래일로 미룰 수는 없어요.》

명선이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하고는 그냥 복습을 계속했다.

한 번 결심한 일이라면 어김 없이 실천하고야 마는 명선이는 아직 그 날 일과를 다음 날로 미루어 본 적이 없다.

오늘 명선이는 협동 농장 작업반에 나가 연예 공연을 하고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 왔다. 그래 좀 피곤도 하고 밤도 깊어 자리에 눕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오늘의 일과를 래일로 미룰 수는 없었다.

밤이 이슥해서야 명선이는 일과표에 계획된 학습을 다 끝마쳤다. 그는 책상을 정돈하고 일기책을 펼쳐 놓았다.

머리에 문득 떠오르는 것은 오늘 분단 지도원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였다.

방과 후 막 집으로 돌아 가려고 모두 헤여졌는데 분단 지도원 선생님이 뒤쫓아 나오시면서 소년단원들을 멈춰 세웠다.

《동무들에게 방금 전해 온 기쁜 소식을 알려 드리겠어요. 도 민청에서는 동무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부도 잘 하고 소년단 생활에도 모범이라고 우리 분단 전체 동무들에게 야영권을 보내 왔습니다.》

동무들은 와! 환성을 올렸다. 이 기쁜 소식을 듣는 명선이의 머리에는 한 해 전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났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지난 해 이른 봄이였다. 휴식 시간에 운동장으로 달려 나온 동무들은 모두 즐겁게 뛰노는데 선비만은 복숭아나무 옆에 혼자 우두커니 서서 꽃'잎을 매만지며 시무룩해서 먼 산만 바라 보고 있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니?》

《…》

명선이는 선비에게 다가 서며 물었다.

선비는 고개를 딴 데로 돌릴 뿐 대답이 없었다.

선비는 인민반 때도 학업 성적이 제일 뒤떨어졌었다. 그런데 중등반으로 진급하

자 배우는 내용이 더 어려워지고 새 과목까지 늘고 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동무들을 따라 갈 수 없었다.

방금 끝난 산수 시간이였다. 선생님은 숙제 검열을 했다. 그런데 선비 혼자 숙제를 해 오지 못 했었다. 그는 너무 부끄러워서 한 시간 동안 내내 고개를 들지 못 했었다. 명선이는 선비의 마음을 곧 알아 맞힐 수 있었다.

《넌 산수 시간에 있은 일 때문에 그러는구나. 걱정 말어, 이제 곧 동무들을 따라 갈 수 있어, 분단이 너를 도울 거야.》

명선이는 선비의 손을 끌고 동무들 속으로 뛰여 들었다.

명선이는 그 날부터 선비의 학습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학교에 오가는 짧은 시간마저 선비의 학습을 돕는데 바쳤다.

《얘, 오늘 문학 숙제는 단문 짓기지. 선생님이 내 준 〈재근재근〉이라는 어'구를 가지고 단문을 지어 보자.》

집으로 돌아 오다 한우물고개 마루에 앉아 쉬면서 명선이는 이렇게 문제를 내놓았다.

《그래, 〈산에 올라 가는 사람들은 숨이 차서 재근재근 한다.〉》

선비는 이렇게 단문을 지었다.

《넌 재근재근이라는 어'구의 뜻을 잘 리해하지 못 했구나. 선생님이 재근재근은 어린이들이 잠 잘 때 숨을 쉬는 소리를 표현한 거라구 하지 않던…》

《그럼 〈등에 엎힌 내 동생이 재근재근 자고 있다.〉 어때?》

명선이는 이렇게 같이 배운 내용을 토론도 하고 가르쳐도 주었다.

명선이는 선비의 힘에 알맞게 일과도 짜 주었다. 그리고는 자주 선비네 집에 찾아 가서 일과 대로 그와 함께 공부했다. 그가 어려워하면 자기가 직접 풀어 주기도 하고 어떤 과목은 자기 학습장을 빌려 주어 옮겨 베끼게도 하였다.

어느 날 산수 시간이였다. 선비는 동무들 앞에서 숙제를 훌륭히 풀었다. 이것을 보는 명선이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이였다. 명선이의 얼굴은 곧 흐려지기 시작했다. 선비는 문제를 훌륭히 풀었지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풀이 조건을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잘못 도와 주었구나.)

명선이는 선비가 제 힘으로 풀도록 도와 줄 대신 그의 학습을 가로맡아 어려워하면 자기가 해 주고 자기 학습장을 빌려 주어 베끼게 하군 한 것이 잘못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부터 명선이는 선비의 학습을 가로맡아 해 주군 하던 버릇을 고치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 전처럼 덮어 놓고 교과서를 읽어 주거나 문제를 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선비와 같이 공부하면서 그가 모르는 것을 대주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풀게 했다. 그리고 매일처럼 찾아 가 도와 주다 보니 선비는 의례히 해 주려니 하고 제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의 집을 찾아 가는 회수도 줄이고 공부하다 모를 문제가 있으면 그가 찾아 오게도 하였다.

그랬더니 명선이의 속심을 모르는 선비는 처음에는 그가 자기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도와 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명선이가 정말로 자기의 학습을 진심으로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더욱 학습에 열성을 내게 되였다.

동무들에 대한 명선이의 방조는 선비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하면 분단의 모든 동무들이 다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고 항상 생각해 왔다. 그래서 하루 생활을 잘 짜 가지고 로어 카트 놀이, 속담 풀이, 계산 놀이, 단문 짓기, 문장 다듬기 등 학습을 내용으로 한 흥미 있는 유희와 오락 등을 만들어서 동무들과 함께 놀았다. 그리고 등산, 견학, 실험 실습을 조직하고 배운 지식을 깊이 다지도록 도왔다.

동무들과 함께 학교 실습지에 나가서 각종 재배 식물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식물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익혔다. 금년 봄에는 식물 과목에서 배운 《휘여 묻이》에 의한 번식 방법에 대한 실습을 통해 1,000 여 그루의 뽕나무를 번식시켜 협동 농장에 보내 드렸다.

명선이는 한편 남은 어떻게 됐던 자기만 공부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일부 동무들의 그릇된 생각을 고쳐 주기 위해 힘썼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산수 시간인데 선생님이 숙제 검열을 하셨다. 이 날 숙제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여서 어떤 동무들은 해 오지 못 했거나 틀리게 해 왔다. 마침 최 동무가 선생님의 지명을 받고 칠판에 나가 그 문제를 풀고 설명하게 되였다. 최 동무는 문제를 훌륭히 풀고 설명도 정확하게 잘 했다. 선생님은 그를 칭찬해 주셨다.

《그 애는 깍쟁이야, 저 혼자만 잘 하겠다구 알면서도 모른다구 하지 않겠니.》

명선이는 휴식 시간에 리 복순이와 몇몇 아이들이 둘러 서서 이런 말을 주고 받는 것을 들었다. 사실은 어제 저녁에 복순이가 숙제 문제를 풀다 못해 최 동무를 찾아 갔는데 그는 숙제를 풀어 놓고도 풀다 못 풀었다고 대주지 않았던 것이다.

명선이는 방과 후 최 동무에게 조용히 타일러 주었다. 분단에서는 자기 공부를 잘 하는 동무들을 칭찬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집단을 위해 동무들의 학습을 잘 돕는 모범적인 동무들을 더 많이 칭찬해 주었다. 그 후 최 동무를 비롯해서 공부 잘 하는 동무들이 학습에 뒤떨어진 동무들을 도와 나섰다. 이리하여 서로 돕고 이끄는 아름다운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이 활짝 꽃 피여 났다. 지난 3월, 이들은 도에서 있은 학과 경연 대회에서 단체 1 등의 영예를 받았다.

명선이는 지난날의 이러한 생활을 더듬으면서 오늘의 기쁨을 담아 일기를 써 내려 갔다.

그는 자리에 누워서도 다시 한 번 학습한 내용을 머리 속으로 하나 하나 더듬어 보았다. 머리에는 오늘 배운 것이 하나도 막힘 없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만족의 웃음을 지였다.

☆(이것을 아십니까?)☆

물리 공식 외우기

1) 옴의 법칙: $I=\frac{U}{R}$, $U=IR$

정순—넌 단문을 잘 짓지? 옴의 법칙을 암기해 두기 쉽게 그 공식을 가지고 단문을 지어 보렴.

영철—이렇게 하면 어때? 유(U)명한 사람은 아이(I)들도 알(R)고 있다.

정순—참 그럴듯 하구나.

2) 일을 계산하는 공식

$A=F\cdot S$, (A(일)=F(힘)· S(거리))

정순—그럼 일을 계산하는 공식을 가지고 한 문장만 더 지어 봐. $A=F\cdot S$를 $F=\frac{A}{S}$로 변경시켜서 지어도 좋아.

영철—힘(F)에 맞게 일'거리 ($\frac{A}{S}$)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가?

사이표는 분수 기호로 암기하구 말이야!

정순—넌 척척 박사구나!

공화국 영웅 안 윤찬 형님의 투쟁 이야기

김 덕 현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는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행복을 마련해 주는 사회주의 조국을 생각하게 되며 또 이 조국을 마련하기 위해 피 흘려 싸운 혁명 투사들과 그리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우리 조국을 지켜 싸운 많은 영웅 아저씨들과 형님들을 생각하게 되지요.

이것은 1951년 6월에 있은 일이랍니다.

공화국 영웅 안 윤찬 분대장 형님네 구분대는 동부 전선 어느 한 고지를 지켜 싸우고 있었답니다.

고지는 매우 중요한 곳이였습니다. 그 고지는 금강, 린제, 간성 3 개 방향으로 갈라진 갈림'길 코숭이를 막아 섰으며 그 유명한 1,211 고지 쪽으로 빠지는 길목을 지켜 선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미군놈들은 이 고지를 빼앗아 보려고 눈알이 새빨개서 날뛰였답니다.

그 놈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고지에 개미떼처럼 새까맣게 달라붙군 했습니다. 그러나 용감한 인민 군대 형님들 앞에 그 때마다 녹아 나군 했지요. 그러자 미군놈들은 이번에는 괴뢰군 한 개 련대를 린제 쪽으로 들이밀고 동해 바다 쪽으로는 토이기놈들을 상륙시켜 고지로 육박해서 빼앗아 보려고 궁궁이를 꾸몄습니다.

그 승냥이 같은 놈들의 이런 어리석은 《계획》을 뒤집어 엎기 위해 우리 주력 부대가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 그 곳을 강화할 동안 그 고지를 지켜 서라는 임무를 안 윤찬 형님네 구분대가 맡았었지요.

윤찬 영웅 형님은 자기 분대원들을 데리고 고지를 지켜 놈들의 열 세 번째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해가 서산 마루를 넘어 가자 진드기같이 덤벼 들던 놈들의 비행기도 물러 가고 포 사격도 즘즘해졌습니다.

겁쟁이 미군놈들은 낮에는 그렇게 지랄을 쓰지만 벌써 해가 지기만 하면 우리 인민 군대 형님들의 습격이 무서워 오금을 못 썼으니까요.

윤찬 형님이 지시를 주자 분대원들은 모두가 은폐호에서 나왔습니다. 형님들은 래일 또 원쑤들을 때려 부시기 위해 총도 닦고 무너진 전호도 고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마끔 적당한 자리에 앉아 쉬였습니다. 대원들을 한 번 돌아 보고 나서 윤찬 형님도 중기관총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 잠시 기대였습니다.

변덕이 심한 여름날이라 난 데 없는 검은 구름'장이 지나 가면서 비'방울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구름'장 새로는 고운 저녁 노을이 비꼈습니다.

《매—ㅁ 매—ㅁ…》

갑자기 어디선가 매미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찬 형님은 머리를 들어 그 쪽을 바라 보았습니다. 싸움으로 날이 밝고 싸움으로 날이 저무는 고지에서 듣는 매미 소리는 다른 때 없이 처량했으니까요.

또 윤찬 형님은 매미를 어릴 적부터 무척 좋아했답니다.

매미 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어릴 때 있은 한 생각이 문득 떠오르지 않겠어요. …윤찬 형님이 겨우 여덟 살 나는 해 여름이였습니다. 그 날도 형님은 아버지가 땅을 얻어 부치고 있는 최 목사 지주네 소를 끌고 들로 나갔습니다. 소나기가 가신 뒤라 사방에서 《매—ㅁ 매—ㅁ》하고 매미들이 요란스럽게 울어댔습니다. 윤찬 형님은 매미 소리를 따라 여기저기 뛰여 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 이 망할 새끼야! 소를 먹이지 않구 뭘 해. 응!》하는 볼멘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돌아 보니 최 목사란 놈이 도끼눈을 하고 서슬이 퍼래서 서 있었습니다.

《에익! 이 게으름뱅이 자식!》 솥뚜껑 같은 최 목사놈의 손이 연방 날았습니다. 그 때마다 윤찬 형님의 눈에서는 불이 번쩍번쩍 일었습니다. 그는 나중에는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최 지주놈은 넘어진 윤찬 형님의 손에서 매미를 빼앗아 땅'바닥에 짓'이겨 버리고 휑하니 가 버렸습니다.

이튿날 지주는 소를 잘 먹이지 않는다는 구실로 반작으로 주었던 소를 빼앗아 가고 말았습니다. 소를 떼웠으니 농사'일을 무엇으로 했겠습니까. 허리 뼈가 휘도록 보섭'줄을 어깨에 메고 당기며 밭을 갈았지요.

이게 다 나라가 없고 제 땅이 없는 탓이였답니다. 그러나 그런 설음을 어디 가 하소연이나 했겠습니까!

8.15 해방이 되자 윤찬 형님네 집에서도 그처럼 바라던 땅 3,000 평을 분여 받았습니다.

조선 로동당이 펼쳐 놓은 인민 주권의 혜택은 이 뿐만 아니였습니다.

형님네는 지주 최 목사가 살던 벌방 장평리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이사를 내려 왔고 윤찬 형님과 손아래 동생들도 모두 학교에 가게 되였으며 살림은 달과 해가 지날수록 늘어 갔습니다.

옛날엔 설 명절에도 구경하기 힘들던 입쌀을 해마다 수십 가마니씩 무져 놓고 살게 되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던 윤찬 형님은 《어림도 없다, 네놈들이 이 행복을 빼앗자고…》 불끈 두 주먹을 틀어 쥐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바탕 원쑤놈들을 족여 대리라 다짐하며 자리에서 일어 나 전호들을 돌아 보았습니다.

그 때 갑자기 한 생각이 머리를 번개처럼 스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약 20 리 밖으로 물러 간 원쑤놈들을 습격하여 놈들의 땅크를 몽땅 까부시자는 것이였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겁쟁이 미군놈들은 땅크가 없이는 꼼짝 못 하니까 새로 땅크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겠어요.

형님의 제기는 곧 상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날 저녁 윤찬 형님은 대원들을 데리고 들어 가 적 땅크 여섯 대를 보기 좋게 까부셨습니다.

질겁한 적들은 정말 며칠 동안을 꼼짝 못하고 굴에 들어 박힌 채 있었습니다. 그새 윤찬 형님네는 마지막 판가리 싸움을 할 준비를 마음 놓고 단단히 갖추었습니다.

엿새 째 되는 날이였습니다.

날이 밝자부터 원쑤놈들이 고지에 달려들었습니다. 놈들은 제놈들의 비행기와 새 땅크를 앞세우고 파도식으로 덤벼 들었습니다.

싸움은 진종일 그칠 줄 몰랐습니다.

윤찬 형님은 맨 앞에서 허위적거리며 기여 오르는 키다리 양코배기에게 《따바리》를 휘둘러 대는데 오른 팔이 선뜩 했습니다. 적탄이 팔을 뚫고 나간 것이였습니다. 형님은 벌써 왼 쪽 허벅다리도 적탄에 맞았었습니다.

윤찬 형님은 정신이 아찔하여 전호 옆

력에 쓰러졌습니다. 윤찬 분대장 형님의 《따바리》 총'소리가 뚝 멎자 부분대장 형님이 달려 왔습니다.

《분대장 동무!》

《왜 오오?》

《분대장 동무! 팔, 팔에 피가…》

《괜찮소. 빨리 중기관총 좌지(중기관총을 걸어 놓은 데)로 돌아 가오. 그 중기관총은 이 고지의 열'쇠나 한가지요…》

《분대장 동무! 운폐부로…》 부분대장 형님이 이렇게 웨치면서 한쪽 팔을 잡아 당겼으나 윤찬 형님은 물러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따금 흐려지는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전투를 그냥 지휘했습니다.

《동무들! 이 고지는 조국의 고지요. 한치도 원쑤놈들에게 내여 주어서는 안 되오. 저 기'발을 보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저 기'발을 끝까지 지킵시다!》

윤찬 형님이 고지의 꼭대기에서 펄럭이는 공화국기를 가리키며 웨치자 대원 형님들의 눈들에서는 퍼런 불'길이 막 일었습니다. 형님들은 기여 오르는 원쑤놈들을 쏘아 보면서 총을 쏘았습니다. 수류탄 벼락이 원쑤놈들의 머리 우에 연방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고지 코밑까지 기여 올라 왔던 원쑤놈들이 무더기로 나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놈은 배를 움켜 쥔 채 맴돌다가는 밀풍아리를 잘리운 통나무처럼 나자빠져 데굴데굴 굴러 내려 가고 어떤 놈은 두 손을 번쩍 처들고 언뎍 밑으로 내리뛰다가는 포수 총에 맞은 승냥이 같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빼드러지군 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원쑤놈들의 아우성 소리가 높아 갔습니다.

된 불에 얻어 맞은 원쑤들은 그 자리에 푹푹 나끄꾸라졌습니다.

가까스로 살아 남은 놈들은 총에 맞은 이리떼처럼 비명을 지르며 고지 밑으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북쪽 하늘에 두 개의 붉은 신호탄이 둥그런 선을 그리며 날아 올랐습니다.

뒤에 있는 아군 부대에서 이제는 됐으니 들어 오라는 신호였습니다.

《만세! 만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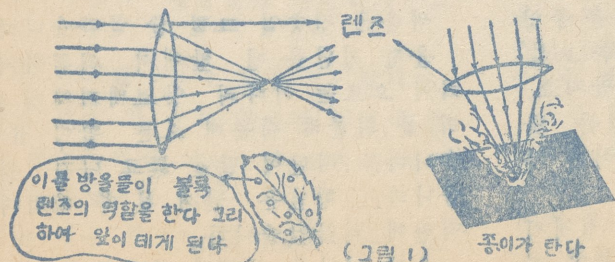
형님들은 서로 얼싸안고 웨쳤습니다.

당과 경애하는 수령님을 위해 언제나 용감하게 싸워 온 윤찬 형님네는 원쑤놈들이 30 번쩍이나 달려 드는 것을 물리치고 사랑하는 고지의 기'발을 지켜 용감하게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안 윤찬 형님에게 우리 인민의 최고 영예인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해'별이 쪼이는 데서 꽃나무에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여름날 해'별이 쪼이는 데서 꽃에 물을 주면 꽃'잎과 꽃나무'잎은 심한 《화상》을 입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왜 그럴가요?

그것은 물'방울들이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볼록 렌즈는 광선을 한 점에 집결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1 참고)

(그림 1)

왜 물 우에 비치는 영상은 실지보다 어두울가요?

만약 동무들이 호수'가에 서면 물 우에는 동무들의 모습이 비칠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 우에 비친 영상은 왜 거울에 비친 것보다 밝지 못하고 어두울가요?

그것은 빛은 물면에 닿으면 다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일부는 굴절하여 물로 들어 가고 나머지가 반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사하는 률이 많을수록 선명하게 보인다.) 때문에 물에 비치는 물건의 영상은 실지 거울에 비치는 것보다 어두워 보이는 것입니다.

사라진 그림자

(4 회)

박 응 호

그림 양 재 혁

4. 그는 누구일가?

하늘에서는 시컴한 구름이 분주히 동쪽으로 흘러 가고 있었다. 스산한 바람이 쏴쏴 소리치며 불어쳤다. 마을 변두리에 줄 지어 늘어선 황철나무들은 바람과 맞서기라도 하듯 끼우뚱거리며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이런 을씨년스러운 밤에도 마을 집집마다에서는 밝은 불'빛들이 들창을 비치고 있었고 하루의 즐거운 일들에 대해 주고 받는 말'소리들이 도란도란 들려 왔다. 어디선가 아이들의 높은 웃음 소리도 들려 왔다.

정미'간 골목길로 네 사람의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소리를 죽여 가며 소곤소곤 말들을 주고 받으며 걸어 가고 있었다. 마을 한복판에 난 십자'길에 이르자 그들은 둘씩 패를 나누워 갈라졌다. 그들은 어느 사이엔가 어둠 속에 사라졌다.

이윽하여 두 그림자가 불쑥 관리 위원회 한쪽 모퉁이에 나타났다. 관리 위원회 회의실에는 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고 누군가 토론을 하는 목소리가 들려 왔다. 녀자의 목소리다.

두 그림자는 잠시 발을 멈추고 토론하는 목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너의 어머니야!》

천룡이의 목소리였다.

《응…》

명길이는 그저 지나는 말로 나직이 대답하였다.

명길이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츰 분노로 떨리기 시작하였고 번쩍 말끄리가 서는 듯 하였다.

《소가 죽은 것은 보통 일이 아니예요. 그런 데다 가끔 마을에 나타난다는 괴물 소문이나 떠도는 이런저런 뜬 소리들도 그저 지내 보낼 일이 아니예요. 반드시 숨은 원쑤놈들의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구 봐요.》

그러며 명길이 어머니는 단단히 경비를 해야 하겠다고 곱씹어 말하였다.

이 날 소가 죽은 일은 마을을 몹시 뒤숭숭하게 하였다. 어딜 가나 이 이야기 뿐이였다.

농장원들은 그것이 앓아 죽은 것이 아니고 못을 먹고 죽었다는 데 버쩍 정신들을 차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자위대를 강화하여 마을을 더 잘 경비할 데 대한 문제도 토의되였다.

사실 요 며칠 사이에 마을에는 별 소문이 다 떠돌았다. 이제 협동 농장이 망한다느니, 농장원들은 굶어 죽게 된다느니, 앞으론 아이들까지 모두 한데 모아 기르게 된다느니 하는 등등이 그것이였다.

사람들은 처음엔 협동 농장이 잘 조직되였으니 주책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도 하였지만 막상 소 사건이 일어 나자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농장원들은 점차 떠도는 소문과 소 사건을 잇대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그러고 보니 가끔 야밤에 나타난다는 도깨빈가 뭔가 하는 것도 다 례외로 칠 수 없는 일이라고들 짐작했다.

명길이와 천룡이들은 다시 어둠 속에 사라졌다.

얼마 후에 그들은 동구 앞 쪽에 있는 양수장 근방에 나타났다. 그들은 잠시 발을 멈추고 경쾌하게 퐁퐁퐁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양수기의 발동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두 아이는 양수장 오른 쪽 좀 높은 둔덕 우에 올라 갔다. 거기는 키가 듬뿍 자란 옥수수밭이였다. 두 아이는 옥수수밭 속으로 들어 갔다.

바람은 차츰 물'기를 머금고 불어쳤다. 옥수수'대들이 설렁거리였다. 금시 한 소나기가 퍼부을 것만 같았다.

명길이는 비옷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 한스러웠다. 그러나 이제는 어쩌는 수 없다고 단념하는 수 밖에 없었다.

두 아이는 옥수수'대 사이로 마을 쪽을 지켜 보기 시작하였다. 으시시 몸이 떨렸다.

이 언덕에서는 마을에 들어 가는 두 갈래 길을 지켜 볼 수 있었고 마을도 한눈에 안겨 왔다.

《무섭지 않니?》

명길이가 흘끔 천룡이를 돌아 보며 나직이 물었다.

천룡이는 대답 대신 한 번 부스럭거렸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앉아 있었다.

《천룡이…넌 어떻게 생각하니?》

명길이가 나직이 속삭이듯 말하였다.

그러나 천룡이는 끔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넌 왜 입만 꾹 다물고 있어?》

《…무슨 말을 하겠니…》

《그래두 네 생각이 있을 게 아냐?》

《……》

《천룡아…그 전부터 한 번 물어 보구펐는데…너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건…없어…》

천룡이는 잦아 드는 목소리로 애매하게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좋지만……난 왜 그런지 자꾸 네 일이 걱정이 돼서…》

명길이는 더는 찍어 말을 못 하고 말끄리를 흐리마리해 버렸다.

천룡이는 또 버릇 대로 호 한숨을 쉰다. 바람 소리에 명길이가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살며시 천룡이의 차거운 손을 더듬어 쥐였다.

순간 천룡이는 명길의 손'길에서 따뜻한 정이 콸콸 자기 몸에 흘러 드는 것을 느꼈다. 알 수 없는 야릇한 심정이 온 몸을 휩싸았다.

《천룡이! 참 넌 이 담에 뭘 할래?》

명길이가 갑자기 말머리를 바꾸었다.

《뭘 하긴…나야 뭐…》

《난 이제 크면 농업 기사가 될래… 어때? 될 것 같아?》

《너야 되구 말구…》

《…그 땐 아마 우리 마을은 몰라 보게 달라질 거야. 저 초가집들은 다 없어지구 대신 그 자리엔 흰 벽에 유리창이 달린 으리으리한 기와집들이 일어 설테니까…어머니가 그러는데 이제 머지 않아 여겐 구락부도 생기고 밤마다 영화도 돌린대.》

명길이의 말'소리는 비록 낮았으나 그 속에는 금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이 찰랑거리고 있었다.

《…그 뿐이야. 이제 저 남대산과 이 언덕은 모두 과수원이 될 게구…소 무리와

양떼들은 구름처럼 흘러 다닐 게구…그럼 아마 우리 마을은 꽃구름 속에 잠기게 될 거야.》

《넌 정말 좋겠다…》

천룡이는 시름 없이 중얼거렸다.

《나만 좋을라구? 너두, 너의 어머니두 이제 다 락을 보며 살게 되지…》

《…우리 어머닌 말두 말어…》

《건 무슨 소리야?》

《…거저…》

천룡이는 좀 당황해 하며 슬며시 명길의 손에서 자기 손을 빼 냈다.

《명길아…》

별안간 천룡이가 명길에게 바싹 다가 앉았다.

《…!?》

《난 너의 어머니가 좋아…어머니더러…밤엔 나다니지 마시라구 일러 드려…》

천룡이는 긴장해서 굳어진 혀를 놀렸다.

《우리 어머니야 늘 밤마다 회의를 다니는데…그런데 그건 무슨 소리야?》

명길이는 무슨 뜻으로 천룡이가 그런 말을 꺼내는지 알 수 없었다.

《…요즘 마을이 뒤숭숭하지 않어? 너의 어머닌 당원이구, 그리구 농장 간부 아냐.》

《원, 넌 별 걱정을 다…》

그러면서도 명길이는 자기 어머니를 걱정해 주는 천룡이가 고마왔다. 그들은 다시 무거운 침묵 속에 물끄러미 두 갈래 길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후둑후둑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럴 즈음 마을 서쪽 기슭에 있는 축사 옆 덤불 속에서도 소근거리는 말'소리가 오갔다. 경팔이와 문일이였다.

두 아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옴짝도 하지 않고 덤불 속에 엎디여 있었다. 바람'결에 풀 냄새가 풍겨 왔다. 더우기 구수한 쑥 냄새는 흥분 속에 잠긴 두 아이를 취할듯 자극했다.

경팔이가 부시락거리며 문일이 곁에 다가 들며 나직이 말을 걸었다.

《문일아! 너 계급 투쟁이 뭔지 아니?》

《뭐?》

《계급 투쟁 말이야!》

《별 싱거운 소릴 다…》

문일이는 흥하고 코'방귀를 쳤다.

《난처한 애구나, 넌 정말.》

《쉬! 떠들지 말어.》

문일이는 시끄럽다는듯이 톡톡 내쏘았다.

《계급 투쟁이란 건 말야, 바로 우리가 하는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란 말야.》

경팔이는 제법 아는 체를 하였다.

경팔이의 맘 속에 들어 갔다 나온 것처럼 그의 속심을 환히 꿰뚫고 있는 문일이는 경팔이가 왜 갑자기 이 말을 꺼내는지 제꺽 알아 맞혔다.

낮에 수로 동'둑에서 오늘 밤부터 남들 몰래 경비를 서자는 약속을 한 뒤 경팔이는 저녁을 먹기가 바쁘게 문일이를 찾아 왔다. 이 때 그의 주머니 속에는 얄팍한 책 한 권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며칠 전에 '뜨락또르 운전수 강습에 간 형님의 책이였다. 그 책 제목이 바로 《계급 투쟁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였다.

원래 뽐 내기 좋아하는 경팔이여서 이 때도 몇 자 읽어'본 걸 또 자랑해 보려고 그런 말을 꺼낸 것이였다.

자기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는데 화가 난 경팔이는 자기도 모를 말을 주어 섬기면서 설명하려 들었다.

문일이는 잔뜩 이마를 찌프리며 찍 하고 이'새로 침을 내뿜었다.

이 때였다. 웬 그림자가 축사 앞을 지나 골목길 모퉁이를 이루고 있는 덕보 할아버지네 키 높은 수수'대 바자를 끼고 슬금슬금 걸어 가기 시작하였다.

《나타났다…》

문일이가 다급히 속삭이였다.

경팔이 눈에도 그림자가 보였다.

두 아이의 가슴이 일시에 쿵쿵 뛰기 시작하였다. 징—하니 귀울림까지 났다.

《문일아! 빨리 명길이한테 알려라!》

경팔이가 서두르며 명령'조로 말하였다. 문일은 그 놈을 추격하고 싶었으나 경팔이가 조장인 형편에서 싫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사이엔가 방울로 떨어지던 비는 차츰 줄기를 이루며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문일이를 명길에게 련락을 보낸 경팔이는 혼자서 수상한 그림자를 뒤따르기 시작하였다.

그림자는 발'소리도 내지 않고 슬슬 앞에서 걸어 가고 있었다.

경팔이는 비가 오는 것도 감각하지 못한 채 두 주먹을 꽉 부르쥐고 그림자를 따랐다. 후들후들 아래'다리가 떨려 좀체로 발을 옮겨 짚을 수가 없었다.

경팔이는 그만 가슴이 섬찍하였다. 수상한 그림자는 점차 명길이네 집으로 다가 가는 것이 아닌가.

《야…저 놈이 또!》

경팔이는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그 어떤 불길한 생각에 부르르 몸을 떨었다.

앞에 가는 그림자는 뒤따르는 경팔이를 감촉 못 했는지 여전히 집들의 담장에 딱 붙어서 걸어 갔다.

그림자가 명길이네 집이 바라 보이는 골목길로 꺾어 들어 갔을 때였다. 별안간 확 불'빛이 어둠 속에 비쳤다. 그와 함께 다급히 달려 가는 발'자국 소리가 났고 뒤따라 알 수 없는 고함 소리 비슷한 게 들려 왔다.

경팔이는 정신 없이 뛰여 갔다. 그가 골목을 꺾어 나왔을 때 명길네 집 나무'간을 핥고 있는 불'길이 눈에 띄웠다.

《불이야!》

경팔이는 더는 생각할 사이도 없이 소래기를 치며 명길네 집 마당으로 뛰여 들었다.

경팔이의 고함 소리에 사람들이 뛰쳐 나왔다.

불은 다행히 나무'간 한쪽을 태우고 인차 꺼졌다.

명길이, 천룡이, 문일이들이 숨이 턱에 닿아서 달려 왔다. 그들은 그만 아연하였다.

뒤미처 어머니가 왔고 관리 위원회 간부들이 회의를 하다 말고 달려 왔다.

비는 더욱 스산하게 휘뿌렸다.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비 뿌리는 뜰안에 멍청하니 서 있었다.

명길이는 오싹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원쑤놈들이 자기 집을 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천룡이도 주먹을 부르쥐며

《개 같은 놈!》

하고 부들부들 주먹을 떨었다.

경팔이는 그 수상한 그림자를 놓친 게 분해서 탕탕 발을 굴렀다.

그 그림자는 과연 누구일가?

아이들은 수상한 놈을 붙잡지 못 한 안타까움으로 속을 태우며 사람들 속에 끼워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조국의 산야를 기름지게

교수 최여구

옛날부터 아름다운 금수 강산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나라의 높고 낮은 산과 들에는 많은 짐승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들에게 맛나는 고기와 푹신한 털가죽, 귀중한 약재를 주는 짐승들과 해로운 벌레나 짐승들을 잡아 없애는 짐승들도 많습니다. 이런 짐승들은 모두 우리의 생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산과 들을 한층 아름답게 하여 줍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리로운 짐승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많이 번식시켜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떤 산'짐승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증식시켜야 할가요?

먼저 산'짐승 중에서 가장 친근한 노루류를 들어 보기로 합시다.

노루는 좀 높은 산 중턱 이상에 사는데 우리 나라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노루의 수컷은 대가리 우에 뿔이 있으므로 암컷과 수컷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뿔은 끝이 2~3 가지로 갈라졌으며 매년 겨울, 봄 사이에 낡은 것이 빠지고 새 것이 돋아 납니다. 노루는 다리가 길어서 잘 뛰며 소와 같이 차기도 합니다. 온 몸의 털 빛이 갈색이여서 숲 속에서 잘 보이지 않으며 엉뎅이에는 흰 털이 있어서 뛸 때에 뒤'놈이 앞놈을 잘 알아 봅니다. 이것을 속담에 《노루의 수건 붙이》라고 합니다.

노루는 성질이 매우 비겁하며 낮에는 대체로 숲 속에 숨어 쉬고 아침과 저녁에 가만히 나와 다니면서 먹이를 얻습니다. 노루는 약 70 가지의 풀과 연한 나무'잎 및 순들을 먹습니다. 겨울이면 마른 잎과 연한 나무 껍질을 먹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쌓였을 때는 먹이를 찾아 인가 근처에까지 내려 오기도 합니다.

노루는 매년 봄, 여름 두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노루는 고기가 맛나므로 산'짐승 가운데서 제일 좋은 사냥 대상으로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수가 많지 않고 번식이 더디므로 잘 보호하면서 리용해야 합니다.

복작노루

복작노루는 서해안 지방의 낮은 산과 높은 산 중턱 이하에 삽니다. 노루보다 몸이 작으며 수컷에 뿔이 없

고 웃턱에 두 개의 송곳'이가 길게 입밖으로 나왔습니다. 습성은 노루와 비슷한 점들이 많으며 낮에는 쉬고 아침 저녁에 산'기슭으로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 먹으며 때로는 먹이를 찾아서 논 밭으로 내려 오기도 합니다.

사슴

복작노루는 매년 늦은 봄에 3~4 마리의 새끼를 칩니다. 복작노루는 그 수가 많지 않으므로 역시 잘 보호하면서 리용해야 합니다.

사향 노루는 전국의 깊은 산에 살며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몸이 작고 털빛이 회갈색인 데다가 수컷의 배꼽 가까이에 향냄새를 내는 선이 있어 번식기에는 강한 향내를 내여 암컷을 접근시킵니다. 특히 이 향선은 귀중한 약재와 향료로써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자원을 풍부히 하기 위하여 잘 보호하며 번식시켜야 합니다.

약재로 쓰이는 짐승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사슴입니다.

사슴은 노루보다 몸이 훨씬 크고 수컷에 길다란 뿔이 있습니다. 이른봄에 돋아나올 때에는 가죽에 싸여 연합니다. 이것을 록용이라고 하여 귀중한 보약으로 쓰입니다. 현재 백두산 일대에만 살고 있는데 그 수는 매우 적습니다. 지금 라진군에서는 인공적으로 사슴을 길러 보약으로 될 록용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들에게 좋은 털가죽 등을 주는 짐승들에 대하여 보기로 합시다.

쪽제비, 여우, 너구리, 오소리, 검은돈 등은 모두가 우리들에게 좋은 털가죽을 줍니다.

검은돈은 백두산 일대에 살고 있으며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몸이 쪽제비와 비슷하며 몸통이 길고 날씬하며 짧습니다.

동작이 빠르고 나무도 잘 타며 쥐류와 작은 새들을 잡아 먹습니다. 검은돈은 돌각담이나 나무통 속에 둥지를 틀고 매년 1~4 마리의 새끼를 칩니다.

전신을 덮은 털은 황색을 띈 담회색 또는 흑갈색이여서 매우 부드럽고 아름답습니다. 일제 강점 시기 왜놈들이 함부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때문에 공화국 정부에서는 귀중한 검은돈을 번식시키기 위하여 잡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보천보 일대를 검은돈의 보호지로 정하고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새들 중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은 꿩입니다.

꿩은 우리 나라 어디에 가나 있습니다. 꿩은 모양과 습성이 닭과 비슷한 새입니다. 날개가 비교적 작아서 나는 것이 서투르고 그 대신 다리가 강하여 잘 기여 다닙니다. 닭과 같이 암컷과 수컷의 차이가 뚜렷하며 수컷을 장끼라고 부르며 암컷을 까투리라고 부릅니다.

꿩은 여러 가지 식물의 열매와 씨를 먹는 외에 발로 땅을 파 헤치면서 벌레도 잡아 먹습니다.

꿩은 보통 한 해에 두 배의 새끼를 치는데 한 배에 열 개 이상의 알을 낳습니다. 봄'별이 따스한 산 마루에서 《꿩꿩》하는 높은 울음 소리가 들려 올 때가 바로 그들이 번식하는 계절입니다. 숲 사이에 마른 잎으로 오목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곳에 알을 낳으며 닭과 같이 암컷이 안아 깨웁니다. 알에서 깨여난 꿩의 새끼는 즉시로 엄지를 따라 다니면서 모이를 주어 먹습니다.

꿩은 우리들이 기르는 로력을 들이지 않고 닭에 못지 않는 맛나는 고기를 얻으므로 실로 우리 나라의 귀중한 자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함부로 잡은 결과 어떤 지방에서는 꿩을 찾아 보기 매우 드뭅니다. 때문에 꿩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라에서는 1959년부터 금년까지 잡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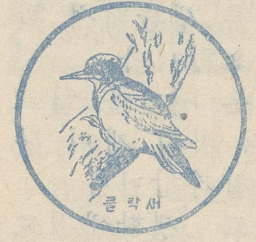
한 마리의 꿩은 5 년 동안에 400 마리로 번식합니다. 때문에 특히 번식기에 잘 보호해야 합니다. 꿩의 보금자리나 알 같은 것을 보면 꺼내 오지 말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꿩

부엉이는 한 마리가 1 년에 1,000 여 마리의 쥐를 먹습니다. 이것은 그 쥐들이 1 년 동안에 먹어 없애는 한 톤의 낟알을 구해 내는 것으로 됩니다. 부엉이, 박새, 딱따구리 등은 년중 우리 주위에 머물러 살면서 항상 우리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새 한 쌍이 과수원에 있으면 50 그루의 과일나무를 해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딱따구리도 산림, 공원, 과수원의 해충을 잡아 먹습니다.

딱따구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클락새입니다.

클락새는 세계에서 우리 나라의 황해북도 평산군 이남 지방에만 살고 있습니다. 크기가 까치만 하며 등 쪽은 검고 배 쪽이 희며 대가리 꼭대기는 붉어서 매우 아름답습니다. 산'기슭의 참나무나 밤나무 등 늙은나무로 날아 다니면서 줄기 속에 들어 있는 벌레를 잡아 먹으며 《큰악 큰악》하는 높은 소리로 웁니다. 클락새는 매우 희귀하고 또 해충을 없애는 새이므로 우리 나라에서는 잡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개성 송악산을 클락새의 보호지로 정하고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에는 우리의 생활에 리로운 짐승들과 새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짐승들을 잘 보호하며 산과 들에 나무들을 많이 심어 짐승들이 마음껏 뛰놀며 많은 새끼를 치게 합시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를 경치 아름답고 리로운 짐승들이 많은 나라로 만듭시다.

이것을 아십니까?

도마도의 덧가지 따 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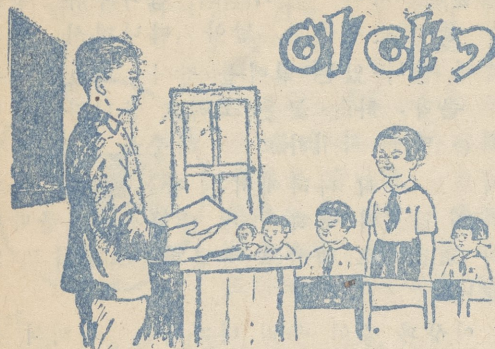
도마도의 수확을 높이자면 필요 없는 덧가지들을 제때에 따 주는 것이 좋다. 필요 이상으로 덧가지가 무성하면 힘이 약해져서 열매가 여러 차례에 걸쳐 옹글차게 익지 못 한다.

도마도는 줄기의 덧가지들이 5~7 cm 이상 더 자라지 못 하도록 그것들을 칼이나 가위 또는 직접 손톱으로 잘라 주어야 한다. 이것은 한해 여름 내내 해야 한다. 그러다가 도마도 줄기의 원가지에서 다섯번째 꽃송이가 조그마한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에는 그 우에 두 개의 잎만을 남겨 놓고 순을 잘라 버려야 한다. 일찌기 익는 종류의 도마도를 내놓고는 다 이런 방법으로 재배한다.

오이 넌출의 순 자르기

오이가 많이 열리게 하자면 오이 넌출에 덧가지가 많이 나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오이 넌출의 순을 제때에 잘라 주어야 한다. 오이 넌출의 순은 처음 4~5 매의 잎이 돋아났을 때에 잘라 주는 것이 좋다. 이처럼 오이 넌출의 순을 제 때에 잘라 주면 덧가지가 많이 나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암꽃은 이 덧가지에서 많이 피게 된다. 때문에 덧가지는 자르지 말아야 한다.

례절에 대한 이야기

(2 회)

학교에서 지켜야 할 례절

소년단원들의 하루 생활에서 학교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단원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공부하며 여러 가지 재미나는 과외 사업에도 참가합니다.

이러한 모든 학교 생활에서도 학생들은 선생님에게는 물론이고 동무들끼리도 서로 례절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가서 동무들을 만나면 서로 인사를 해야 합니다.

소년단원인 경우에는 소년단 경례를 할 것이고 소년단원이 아닌 동무들은 보통 인사를 할 것입니다.

먼저 수업 시간에 지켜야 할 례절을 말해 봅시다.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나기전에 수업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 오시면 학생들은 제자리에서 똑바로 일어 섭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오신 교수 용품들을 교탁 우에 놓은 후 학급장의 구령에 따라 일제히 허리를 굽혀 경례합니다.

선생님이 《앉으십시오.》 또는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모두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는 자세를 바로 하고 선생님의 설명과 다른 동무들의 대답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정중하게 일어 서서 큰 소리로 대답하고 앉습니다.

실험을 할 때나 또는 칠판 앞에 나가서 설명하는 경우에도 지명받은 학생은 큰 소리로 대답하고 제때에 나가 대답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실험이나 대답이 끝나면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제자리에 돌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학생들의 대답에 대하여 의견이 있거나 또는 더 보충할 것이 있을 경우에는 손을 들어 선생님의 허가를 받은 후 말하며 한 학생이 말할 때에는 다른 학생들은 조용히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만약 이 때 떠든다거나 그 동무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은 수업 규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되며 대답하는 동무에 대하여도 실례입니다.

수업 도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실에서 나오게 되거나 교실에 들어 가게 되는 경우에는 선생님께 그 사정을 말씀 드리고 선생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업이 끝날 때에는 《수업을 끝마치겠습니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교과서와 학용품들을 책상 안에 조용히 넣고 그 자리에 일어 섭니다.

그 다음 학급장의 구령에 따라 학생들은 허리 굽혀 선생님에게 인사하고 선생님이 나가신 후에 조용히 밖으로 나갑니다. 복도를 걸어 다닐 때에는 오른 쪽으로 조용히 다녀야 하며 선생님이나 웃어른을 만났을 때에는 약간 비켜서서 인사를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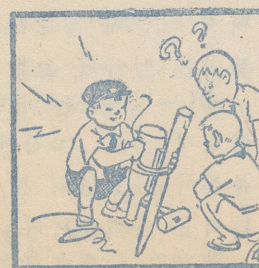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장실, 교직원실에 출입할 때에는 가볍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 가도 좋습니까?》 하고 허가를 받고 들어 가야 합니다.

교직원실에 들어 가서는 출입구의 한 쪽 옆에 서서 경례를 한 다음 자기와 만나려는 선생님 앞에 가서 인사하고 용무를 말하여야 합니다.

용무를 끝마치면 《돌아 가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나와야 합니다.

학교의 복도나 운동장에서 혼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에는 소년단 경례를 하며, 여러 동무들과 같이 놀던 경우에는 먼저 본 학생이 《차렷, 경례!》 하는 구령에 의하여 모든 동무들이 일제히 소년단 경례를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선생님께는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며 동무들끼리는 소년단 경례를 하여야 합니다.

(왜)(그)(럴)(가)(요)(?)

꽃은 왜 색갈이 있고 향기로운가?

꽃의 세포에는 다종다양한 화청소라는 것이 있다. 즉 붉은 것, 흰 것, 누런 것, 푸른 것 등등이 있다.

이것 때문에 꽃은 여러 가지 색갈을 나타낸다.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것은 꽃 가운데 휘발유 성질의 물과 지방질이 있는데 여기에는 향기가 포함되여 있다.

이것이 사방에 흩어져서 사람은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이런 아름다운 색갈과 향기로운 냄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들과 나비들이 꽃을 찾아 온다.

꾀돌이

그림 안창수

산을 잡아 들여라!

김 진

옛날 어느 시골 서당에서 많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량반의 자식들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량반 자식들에게서 갖은 천대를 다 받아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농민 아이들도 몇이 있었답니다. 농민의 아이들 가운데는 복동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나이는 겨우 열 한 살이였답니다. 량반의 자식들은 거의 모두가 복동이보다 나이가 우였고 지어는 스물에 가까운 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데도 글 공부에서는 복동이보다 못하여 그 날도 선생님한테서 《농사'군의 아들이며 나 어린 복동이만도 못하니 너희들은 량반이라 하면서도 헛나이만 먹었다.》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먹은 량반 아들놈들 몇 놈이 모여서 숙덕 공론을 하고 《재판놀이》를 하여 복동이를 이 서당에서 내 쫓자고 모략을 꾸몄습니다.

공부가 끝난 다음 《재판놀이》가 시작되였습니다.

인차 복동이에게 《재판관》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숙덕 공론을 한 량반의 자식놈들이 복동이에게로 몰려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얘! 이 상놈의 자식아! 정확한 판결을 내리지 못 하면 이 서당에서 쫓겨 날 줄 알아라! 알았지?》

이 말을 들은 복동이는 한편 판결을 잘 못 해서 서당에서 쫓겨 날가 겁이 나기도 했지만 다른 편으로는 놈들의 행위가 괘씸하여 도리여 앙갚음을 해 주고야 말리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던 복동이는 드디여 마루청에 올라 앉아 재판관 노릇을 하게 되였습니다. 복동이는 집장(매를 때리는 사람)을 일부러 농민의 아들들에게 맡겼습니다. 숙덕 공론을 한 스무 살에 가까운 량반의 자식이 복동이 앞으로 나와 복동이를 《재판관》이라고 부르면서도 허리를 굽히지 않고 빳빳이 서서 송사를 했습니다. 그 놈은 아무리 놀음이지만 상놈 앞에 량반이 허리를 굽힐 수 없다는 데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였습니다. 복동이는 엄하게 호령을 하였습니다.

《어—어떤 놈이 재판관 앞에서 허리를 굽히지 않고 그렇게 무례하뇨!》 이렇게 복동이는 량반의 자식에게 맵씨 있게 첫 타격을 주었습니다.

량반의 자식놈들은 하는 수 없이 허리를 굽혀 송사를 했습니다.

《저—우리 집 논에 도적이 들었습니다. 그 놈을 처단해 주십시오!》, 《도적이란 어떤 도적이냐?》, 《다름이 아니라 새떼 올시다. 그 놈의 새떼들이 낟알을 몽땅 까 먹고 산으로 날아 가 버렸습니다. 그런 데도 산은 그 새떼들을 감추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새떼들도 괘씸하지만 산이 더욱 괘씸합니다. 그 산을 처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억지 송사를 하였습니다.

산을 어찌 처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량반 아이놈들은 억지 송사를 해 놓고 복동이가 판결 못 하면 내 쫓자는 속심이였습니다.

아까 숙덕 공론을 한 다른 놈들은 포졸(죄인을 잡아 들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함.) 노릇을 하느라고 손에 포승을 느려뜨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 놈들은 《봐라, 복동이 네 놈이 아무리 령리하다 하더라도 이 송사만은 판결하지 못 하고 쫓겨 나리라!》 생각하면서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동이의 입에서 불호령이 내렸습니다.

《어—그 새놈들은 흉악한 도적들이군! 그 도적을 감추고 내놓지 않는 산이 더 괘씸한지고! 여봐라! 포졸들이 송사한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서 도적을 감추고 내놓지 않는 산을 당장 이 마당에 잡아 와 대령시켜라!

만약에 그 산을 잡아 오지 못 하는 날에는 너희놈들의 목숨을 부지 못 할 줄로 알고 바삐 가서 그 산을 잡아 오라!

그리고 집장들은 든든한 매를 준비해 두라!》 포졸 노릇을 한다면서 킥킥대던 량반의 자식놈들은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망서리고 있는 량반의 자식들을 보고 복동은 또다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놈들은 어찌 우물 쭈물 하는가! 당장에 산을 잡아 오지 못 할가!》

그런데 포졸 노릇을 하는 량반의 자식 한 놈이 앞으로 나서며《어찌 움직일 수 없는 산을 잡아 오리까?》라고 하소연하는 것이였습니다. 그 놈들은 저희들이 내놓은 잔꾀에 저희들이 걸려 든 셈입니다.

그러자 복동이는 짐짓 시치미를 뗵 따고 엄격해지면서 다시 호령을 질렀습니다.

《어—고약한 놈들, 어찌 재판관의 명령을 거역하는가! 여봐라! 집장!》

《예이—》

집장 노릇을 하는 농민의 아들들은 선이 나서 대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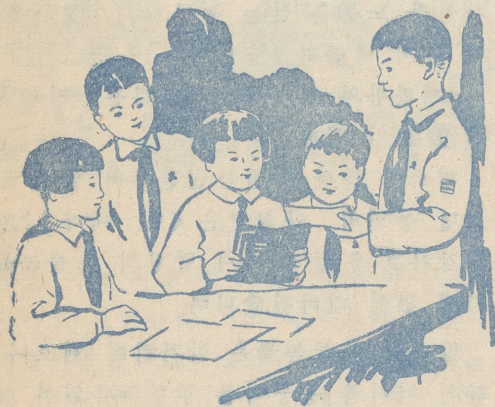
《재판관의 명령을 거역하는 저놈들을 사정 없이 쳐라!》

평소에 량반 아들놈들한테서 멸시 받아오던 농민의 아들들은 《이 때다!》라고 생각하고 욱 몰려 가서 량반의 아들놈들을 사정 없이 내려쳤습니다.

량반의 아들놈들은 항거하려 했으나 갑자기 어디서 몽둥이를 구할 수 없어 그저 늑신하게 얻어 맞고 쭉 너부러져 버렸습니다.

분단 위원장

김 달모

> «단 밑에는 분단이 조직된다. 분단에는 1 년을 기간으로 하는 3~7 명으로 되는 분단 위원회가 선거된다. 분단 위원장은 분단 위원회에서 선출된다.»
>
> 조선 소년단 규정 제 4 장 10 조에서

소년단원들이 소년단 조직 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분단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분단 사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분단 위원회와 특히 분단 위원장의 활동에 크게 달려 있다.

분단 위원장은 항상 소년단원들 속에 당 정책과 김 일성 원수님의 교시, 그리고 자기 분단 앞에 나선 과업들을 알려 주며, 그 실천에로 소년단원들을 조직 동원해야 한다. 때문에 분단 위원장은 자기 임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똑똑히 알고 자기 분단의 모든 활동을 조직하고 집행해야 한다.

그러면 분단 위원장은 자기 사업을 잘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분단 위원장이 자기 사업을 잘 하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분단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분단 위원들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며 나아가서는 전체 분단 동무들이 모두가 움직이게 하여야 한다.

분단 위원장은 자기 분단 앞에 나선 과업을 어김 없이 실천하며 자기 분단 소년단원들이 소년단 규정상 의무에 충실하도록 교양해야 한다. 이것은 분단 위원장 혼자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분단 위원회를 제때에 열고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황해북도 평산군 평산 중학교 단 제 35 분단(모범 분단) 위원장 리 광순 동무는 이런 일을 아주 잘 한다.

그는 자기 분단 앞에 어떤 일이 나설 때마다 반드시 분단 위원회에서 위원들과 함께 의논한 다음 전체 소년단원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분단 위원회에서 토의 결정한다.

분단 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또는 세 번씩 꼭꼭 진행한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결정된 내용에 따라 분단 위원들과 매개 소년단원들에게 힘에 맞는 분공을 골고루 주어서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면 분단 위원들에게 사업을 어떻게 분공하는 것이 좋은가?

평산 중학교 35 분단에서는 분단 위원들이 이렇게 사업을 분공하고 있다.

분단 위원장은 자기 분단의 모든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도하면서 단 위원회에서 받아 온 과업을 분단에서 의논하여 사업 계획을 세우며 위원들에게 분공을 주고 그를 실천하도록 도와 주며 실행 정형을 총화하고 자기 분단 사업 진행 정형을 단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업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분단 기수는 분단 기'발을 보관 관리하며 소년단 규정 학습을 조직하고 의식과 상징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지도 방조하면서 위원회 계획에 따라 총회와 위원회를 소집하며 총회, 위원회 결정 집행을 조직하면서 입단과 필단, 전입과 전출, 표창 추천 사업 등을 하도록 하였다.

분단 벽보 주필은 편집 위원회 계획을 세우고 그를 운영하면서 벽보, 속보 등 분단의 직관물 공작을 조직 지도하며 꼬마 선동원의 활동과 독보회를 조직하며 신문, 잡지를 정확히 나누어 주며, 《영예의 붉은 수첩》을 맡아 기입하도록 하였다.

분단 위원 한 명은 《분단 토론회》와《혁명 전통 연구 모임》을 조직하면서 당 정책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 그리고 계급 교양 사업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또 위원 한 명에게는 소년단원들이 학습 규률을 잘 지키며 항상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습하여 학업 성적을 제고하도록 지도하며 《꼬마 7 개년 계획 활동》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그 밖의 위원 한 명은 《소년 선전 예술대 활동》, 체육 사업, 위생 문화 사업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자기가 속한 반을 책임적으로 지도하게 하였다.

매개 위원들과 함께 전체 소년단원들에게도 취미와 재능에 따라 학습과 교양 등 부문별로 되는 과업을 누구나 한 가지씩 분공을 받아 활동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그 때 그 때 나서는 일들을 잘 분공해서 모두가 움직이게 하였다.

분단 위원장은 이렇게 위원들과 소년단원들에게 힘에 맞는 분공을 준 다음에는 항상 그 실행 정형을 알아 보고 꼭 실천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분단 위원장은 늘 위원들과 만나서 분공 실행 정형을 알아 보고 무엇이 부족하며 걸렸는가를 알고 그의 해결 방법을 하나 하나 가르쳐 주며 도와 주어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위원들이 자기 맡은 과업을 어김 없이 실천하기 위해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다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분단 위원장이 이렇게 자기 활동을 잘 하자면 반드시 사업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

사업 계획은 계획을 세울 때로부터 총화에 이르기까지 힘에 알맞게 세밀하게 세워야 하며 전체 소년단원들과 의논하여 모두가 그 계획을 알고 그의 실천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여야 한다.

평산 중학교 35 분단에서는 분단 위원회 사업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하여 먼저 단 위원회가 내 세운 사업 중심에 근거하여 자기 분단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그 밖의 소년단원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등 분단 동무들의 요구와 의견을 모두 받아 가지고 분단 위원회에서 한 달 동안에 진행할 일을 언제까지 누가 누구와 함께 진행하겠는가를 결정한다. 다음은 이렇게 세워진 계획을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알려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분단 총회에서 토의 결정해서 모든 동무들이 자기가 할 일을 똑똑히 알고 활동하도록 지도하였다. 그리하여 분단 조직이 산 조직으로 되였고 분단 생활은 흥미 있게 진행되게 되였다.

다음으로 분단 위원장이 자기 사업을 잘 하자면 항상 소년단원들의 가장 친근한 동무가 되여야 한다.

분단 위원장은 항상 자기 분단 소년단원들의 기쁨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며 동무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알고

진정으로 돕고 해결해 주며 동무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서슴 없이 바칠 줄 알아야 한다.

《2 중 모범 분단》인 신의주 혁명 학원단 제 8분단 위원장 문 정숙 동무는 이런 일을 아주 잘 한다. 분단 위원장들은 모두 그의 모범을 따라 항상 소년단원들 속에 들어 가 생활하며 그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며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알아 보고 제때에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동무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동무의 기쁨을 자기 일처럼 기뻐할 때 그들과 친해지고 분단 생활을 재미 있게 지도할 수 있으며 모든 소년단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분단 위원장은 학습과 소년단 생활의 모든 활동에서 항상 앞장에서서 소년단원들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뒤떨어진 동무는 친절히 도와 주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 모범을 보이면서 소년단원들이 스스로 자기의 모범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분단을 화목한 한 가정으로 단합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분단 위원장들이 자기 사업을 잘 하자면 소년단 규정은 물론이고 분단 사업 지도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분단 위원장이 자기 사업을 아무리 열성 있게 잘 하자고 해도 알지 못 하고는 안 된다.

그러므로 분단 위원장은 항상 소년단 규정을 학습하여 자기 자신이 규정 상 요구를 잘 알고 그 대로 행동해야 하며 《소년 신문》, 《소년단》 등을 통하여 우수한 경험을 배우고 본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또한 단 위원회에서 조직하는 강습과 경험 교환회에도 빠짐 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항상 집단의 앞장에 서서 분단 사업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

(이것을 아십니까?)

약초 채집자들에게

약초 채집은 날씨가 맑은 날에 떠나야 한다.

약초는 그것이 약초로서 가장 효력을 많이 낼 수 있는 시기에 채집해야 한다.

그럼 어떤 때가 가장 좋은가 알아 보기로 하자.

1) 식물의 엄을 약으로 쓸 때에는 그것이 피여 나기 전에 즉 이른 봄에 채집해야 한다.

2) 식물의 껍질이 약으로 되는 것은 그 식물의 꽃이 피기 전이나 또는 꽃이 피기 시작할 때 채집하는 것이 좋다.

3) 꽃이 약으로 되는 식물은 꽃이 피여 나기 시작할 때가 가장 좋다.

4) 열매가 약으로 되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익었을 때가 좋다.

5) 식물의 뿌리, 구경 (인삼이나 도라지 같은 것), 근경(뿌리의 웃대목)이 약으로 되는 것은 가을이나 봄에 채집해야 한다.

△약초 채집자들이 주의할 점

약초를 캘 때는 바구니나 다래끼, 손삽, 칼, 가위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어떤 약초들은 매우 독하기 때문에 손 도구들을 잘 사용하여야 한다. 독초를 채집할 때에는 약초를 만지던 손을 함부로 눈이나 입술 또는 음식물 등에 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식물을 채집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약초를 말리우는 법

약초는 해'별에 말리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약초를 해'별에 쪼이면 약용 성분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약초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리워야 한다.

약초는 말리우기 전에 그것을 잘 다듬어야 한다. 상한 자리는 제때에 잘라 버려야 한다. 뿌리는 솔을 가지고 찬물에다 잘 씻어야 한다. 굵은 뿌리는 절반 갈라 말리울 수도 있다.

뿌리는 그것이 부스러지지 않을 정도로 말리우며 잎사귀, 꽃, 풀들은 그것이 부스러져 가루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말리워야 한다. 열매는 그것을 가볍게 눌러도 자리가 나지 않고 손'가락에 아무 것도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말리워야 한다.

(동화) 다시는 속지 않을테야

우 봉준

어느 따뜻한 봄날, 종자 바구니를 옆에 끼고 밭으로 나간 흰 토끼가 막 깨씨를 뿌리려 할 때였습니다. 난데 없이 여우 한 마리가 밭머리에 나타나더니

《너 그 깨를 내게 주지 않으면 당장 잡아 먹을테다.》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흰 토끼는 할 수 없이 깨를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흰 토끼는 콩을 자루에 넣어 가지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왔는지 여우가 또 나타나서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콩을 내게 바치고 가거라. 듣지 않으면 너까지 삼켜 버릴테다.》

흰 토끼는 또 콩을 다 빼앗기고 울면서 돌아 왔습니다.

다음 날 흰 토끼는 마지막으로 한 말 남짓한 강냉이를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흰 토끼는 도중에서 여우와 마주쳤습니다.

《밭에까지 가지고 가느라고 수고할 게 없다. 여기 놓고 가거라!》

흰 토끼는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이것마저 빼앗기고 나면 올농사를 못 짓게 되니 말예요.

《안 되우, 안 돼요. 이건 우리 집 식구들의 목숨이 걸려 있는 종자요.》

그러나 여우는 두말 없이 토끼에게 덤벼 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때였습니다.

《너 이 놈 고약한 여우야, 냉큼 물러 앉지 못 하겠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흰 토끼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길'가 둔덕 우에 늑대 한 마리가 서서 여우를 꾸짖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꽁지를 사리고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고요.

늑대는 다시 한 번 호령을 놓습니다.

《너 간사한 여우야! 당장 이 동네서 없어지거라. 만약 다시 한 번 내 눈앞에 얼씬거리는 날은 뼉다구도 못 추릴 줄 알고…》

흰 토끼에게는 더 없이 사납게 굴던 여우건만 늑대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고 뒤'걸음질을 치더니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까이 다가 온 늑대는 흰 토끼의 등을 어루만지며

《놀랐지요? 흰 토끼님, 그러나 이젠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여우란 놈이 다시는 이 동네에 덤벼 들지 못 할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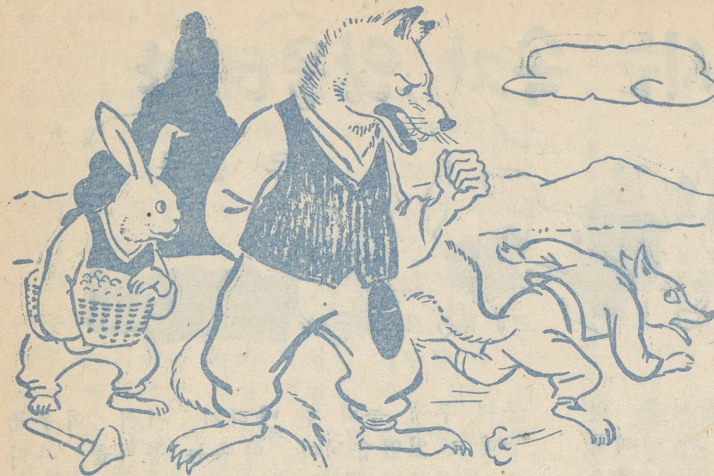
흰 토끼는 그 때야 호— 숨을 돌려 쉬며 《고마와요 늑대님, 죽을 번한 날 살려 주신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살아 갈지 막막하군요.》

흰 토끼는 깨랑 콩 종자를 여우에게 빼앗긴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흰 토끼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늑대는

《걱정 마세요. 내 힘 자라는껏 도와 드릴테니까요. 난 강 건너에서 살지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살아 가고 있어요. 그래 내 재산을 가난하게 사는 친구들을 위해 쓰려구 이렇게 사방 떠돌아 다니던 중이지요.》

늑대와 헤여져 집으로 돌아 오며 흰 토끼는

《참 고마운 량반도 있지, 여우의 손아귀에서 날 살려 줬으니…이 은혜를 뭘루

갚는다…》

하고 되뇌였습니다.

사흘 후 흰 토끼네 집에는 달구지 두 채가 와서 멎었는데 그 달구지에는 콩 닷 말, 밀 닷 말, 벼 두 말이 실려 있었습니다. 뒤미처 늑대가 따라 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무 걱정 말고 받으세요. 도와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걸 드리는 것이니 달리 생각지 마시고…》

콩이랑, 밀이랑, 벼를 부리우고 난 늑대는 곧 되돌아 갔습니다.

흰 토끼는 너무나 고마와 눈물을 흘리며 늑대를 전송하였습니다. 한해 농사를 지어서는 오늘 받은 것들을 꼭 갚으리라고 속다짐하면서 말예요.

그 날부터 흰 토끼는 날이 밝기 전부터 하늘에 별이 총총할 때까지 밭에 나가 살았습니다.

곡식들은 흰 토끼의 땀을 거름 삼아 부쩍부쩍 자랐습니다.

가을이 잡히는 어느 날이였습니다.

흰 토끼네 집에 나타난 늑대는 돈 한 웅큼을 쥐여 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며칠 묵으면서 흰 토끼네 동산 구경을 하다 가겠어요. 이건 얼마 안 됩니다만 찬값이라도 보태 쓰세요.》

흰 토끼는 사양하였으나 늑대는 돈을 떠맡기다 싶이 하였습니다.

흰 토끼는 그 돈으로 술과 고기를 사다 늑대를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늑대는 사흘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흰 토끼네 집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흰 토끼는 가을을 해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드문 풍년이라 고'간마다에는 낟알이 가득가득 차고 넘쳤지요.

보름째 되던 날 늑대는 흰 토끼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다녀 본 중에 이 마을처럼 마음에 드는 곳은 처음이예요. 그래서 아주 이 동네루 이사를 해 올가 하는데요.

새 집을 짓고 이사할 동안 강 건너 있는 내 안해를 이 집에서 함께 살게 해 주실 수 없겠는지?》

흰 토끼는 늑대에게 진 신세도 있는지라 선선히 자기네 안'방을 빌려 주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날 강 건너 있다는 늑대의 녀편네가 이사를 해 왔습니다. 흰 토끼네 식구들은 안'방을 내 주고 건넌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느 날 늑대는 흰 토끼를 부르더니 《다름이 아니라 고'간 열쇠를 내게 맡기는 게 어때요. 언제 또다시 여우가 나타나서 흰 토끼님의 열쇠를 빼앗을런지 알겠어요. 내가 맡아 두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 같군요.》

흰 토끼는 좀 의아쩍은 생각이 들었으나 설마 별일 없겠지 하고 열쇠를 늑대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 날부터 흰 토끼는 쌀 한 되, 콩 한 줌을 꺼낼래도 늑대의 허락을 받고 열쇠를 내오지 않으면 안 되였습니다.

얼마 지나자 늑대는 그것도 못 미더웠던지 자기가 직접 자물'쇠를 열고 낟알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먹는 것은 흰 토끼에게 물어 보지도 않고 푹푹 퍼다가 밥을 지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흰 토끼도 이 번만은 늑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을 도와 주려 왔다는 자가 이럴 수가 있담, 참 뻔뻔스런 놈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벙어리 랭가슴 앓듯 속만 태웠습니다.

그런 어느 날 늑대도 흰 토끼를 부르더니

《거 자네네 건넌방을 좀 내 줘야겠네. 내 가장 가까운 친구를 불러 오기루 했으니…》

이제는 제법 제가 집 주인이나 된듯이 지껄이는 것이였습니다.

《보시다 싶이 집이 좁아서…》

그랬더니 늑대는 눈알을 부라리며

《내가 누군지 모르겠나, 여우 밥이 될 번한 걸 살려 주고 농사 밑천까지 대 준 걸 벌써 잊었느냐 말야?》

하고 으르렁거립니다.

흰 토끼는 강다짐으로 건넌방을 빼앗기고 뜰 아래'방으로 나앉았습니다.

얼마 후 흰 토끼네 건넌방에 늑대의 친구란 놈이 기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찌겠어요. 늑대가 가장 가까운 친구라던 놈이 누군고 하니 지난 봄에 흰 토끼를 잡아 먹으려던 바로 그 여우가 아니겠어요.

흰 토끼는 이 때야 비로소 늑대와 여우의 간사스런 꾀에 속아 넘어 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약한 흰 토끼는 어쩌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바깥 채로 밀려 난 흰 토끼네 식구들은 밤낮 없이 늑대와 여우의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들의 치닥거리를 해야 했습니다. 집도 낟알도 고스란히 이 놈들에게 내맡기고 말예요.

흰 토끼는 이제는 완전히 늑대의 종살이를 하는 수 밖에 없게 되였지요.

이러고도 늑대와 여우는 크게 선심이나 쓰는 듯이 행세했지요. 바로 흰 토끼네를 먹여 살리는 것이 자기들이나 한 것처럼 말예요.

그런데 늑대와 여우는 낮에는 집안에 들어박혀 먹고 마시고 딩굴다가 밤만 되면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었다가 날이 샐녘에야 돌아 오군 하였습니다. 들어 올 때는 무엇인가 두툼한 보따리와 묵직한 자루를 둘러 메고 왔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였습니다.

어느 날 건너'마을에 사는 깜장 토끼가 흰 토끼를 슬며시 불러 내더니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보 흰 토끼님, 도대체 정신이 있어요. 흰 토끼님네 집에 늑대랑 여우가 든 다음부터 우리 동넨 하루도 밤 편할 날이 없다우.

그 놈들이 밤마다 우리 동무들을 잡아 가요, 어서 그 놈들을 쫓아 내세요, 그 대로 뒀다 간 동네가 쑥밭이 되고 말겠어요.》

이 말을 들은 흰 토끼는 뒤늦게나마 자기만 늑대와 여우 등'살에 골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동네 친구들에게까지 불행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자 가슴이 메여지는듯 했습니다.

흰 토끼는 그 날 밤 늑대를 찾아 들어 가 이제는 그만 집을 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허나 늑대는 도리여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야 이 뻔뻔스러운 놈아, 지금

까지 손 하나 안 대고 살려 줬더니 그 은혜는 모르고 집을 내놓으라구?

여우야, 우리 저 놈에게 본때를 뵈 줘야겠다!》

잡시간에 흰 토끼는 늑대와 여우의 발'길에 채웠고 채찍에 얻어 맞아 피를 흘렸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제 집에서 지금까지 은인이라고 믿어 왔던 그 늑대에게 말예요.

피투성이가 된 흰 토끼를 굽어 보며 늑대는 으릉대였습니다.

《내가 네 집에 와서 베푼 은혜를 그렇게 잊다니…너 같이 배은 망덕한 놈은 조금도 용서할 수 없다. 당장 이 집에서 없어지거라!》

이렇게 되여 흰 토끼는 정든 자기 집을 늑대에게 빼앗기고 한지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그 날 밤,

흰 토끼가 살던 집에서는 밤 깊도록 뚱땅거리며 늑대와 여우가 잔치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남의 집을 빼앗고도 버젓한 주인이 된듯이 그것을 축하하는 모양이였습니다.

방안에서 늑대와 여우가 술에 고기에 진탕치듯 처먹으며 떠벌리고 있을 무렵이였습니다. 밖에서는 어슴푸레한 그림자들이 발'소리를 죽여 가며 이 집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담을 넘어 들어 가더니 늑대와 여우가 뚱땅거리고 있는 방문'고리에 덜커덕 자물'쇠를 채워 버렸습니다. 그것은 흰 토끼를 앞장 세운 마을의 토끼들이였습니다.

졸지에 방안에 갇히게 된 늑대와 여우는 밖으로 나오려고 발광을 했지만 굳게 잠긴 방문은 움쩍도 안 했습니다.

흰 토끼와 그의 동무들은 부엌으로 들어 가더니 아궁이에 불을 때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아름씩 처 넣은 장작으로 아궁이에서는 밤새도록 불이 이글거렸습니다.

얼마 안 있어 방안에서는

《앗 뜨거워.》

《앗 뜨거워.》

하며 늑대와 여우가 콩 튀듯 팥 튀듯했습니다.

흰 토끼는 방안에다 대고

《이 놈들, 남의 집, 남의 땅을 생으로 빼앗았으니 너희도 그 값을 치뤄야 하지 않겠니, 어서 실컷 땀을 뽑아 보아라, 맛이 어떤가?》

그러며 계속 불을 뗐습니다.

방안에 갇힌 늑대와 여우는 이제는 확확 달아 오른 방'바닥에서 이리 데굴 저리 데굴 굴다가 축 너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때라고 생각한 토끼들은 문을 열고 우르르 달려 들어 간사하고 음흉한 늑대와 여우를 꽁꽁 묶어 미루나무 꼭대기에 다 목을 매달았습니다.

다시 찾은 자기 집에서 주인답게 떳떳이 살게 된 흰 토끼는 친구들을 만나면 곧잘 이렇게 말한답니다.

《다시는 속지 않을테야. 도적놈을 은인으로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지. 세상이 다 나처럼 맘씨가 착하리라고만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였어, 늑대는 여우보다 몇 곱절 간사한 놈이란 걸 난 미처 몰랐었다니까, 늑대와 여우가 한 통속이라는 걸 난 미처 몰랐었다니까…》 라고.

△ 감나무 밑에 누워서도 삿갓 미사리를 대여라.

(아무리 유리한 조건이라도 로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도랑 막고 고래 잡을가.

(노력은 적게 하고 엉뚱하게 큰 것을 바라는 자를 풍자하는 말.)

△ 낮 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남모르게 하는 말도 소문이 난다는 말.)

꼬마 진료소

일사병

공 차기를 하던 순돌이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어지럼'증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철순이는 방금 그 자리에 쓰러질것만 같은 순돌이가 걱정되여 꼬마 진료소로 뛰여 갔습니다.

나무 밑에 순돌이를 눕힌 꼬마 의사는 찬물로 가슴을 찜질해 주면서 일사병에 걸렸다고 하였습니다.

철순이와 동무들은 일사병이란 왜 생기는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철순—일사병이란 어떤 병이냐?

꼬마 의사—일사병이란 무더운 여름날 머리에 아무 것도 쓰지 않고 해'별이 내리쪼이는 데서 오래 동안 논다거나 또는 등산, 행군 시에도 잘못 하면 걸리는 병이야. 즉 우리들이 말하는 《더위 먹는다》는게 바로 이 일사병을 말하는 거야.

남칠—일사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니?

꼬마 의사—일사병에 걸리면 가슴이 두근거리며 식은 땀이 나고 목이 마른단다. 그리고 심하면 갑자기 열이 나면서 얼굴이 붉어지다가 하얗게 되면서 어지럼'증이 나며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넘어지기도 한단다.

남칠—갑자기 일사병에 걸린 환자를 어떻게 도우면 좋으니?

꼬마 의사—일사병 증상이 나타나기만 하면 곧 서늘한 그늘 아래로 환자를 옮겨다 눕혀 놓거나 앉혀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찬물을 먹이면서 머리와 가슴에 랭수 찜질을 해 주는 것이 좋아. 만약 환자가 정신을 잃게 되면 몸에 찬물을 끼얹고 주물러 주는 것이 좋구, 호흡이 약할 때에는 인공 호흡도 시켜 주어야 해. 물론 심할 때는 곧 병원에 데려 가서 의사 선생님들의 치료를 받아야 하지.

철순—일사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니?

꼬마 의사—일사병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서는 여름에 더운 날 어디 나가거나 등산과 야영을 떠날 때면 반드시 모자를 써야 한단다. 만약 이 때 검은 모자를 썼다면 흰 카바를 씌워 쓰는 것이 좋아. 흰 것은 태양 광선을 잘 흡수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해'별이 내리쪼이는 곳에 너무 오래 서 있지 말아야 한단다. 또한 작업을 할 때에는 모자나 수건을 쓰고 하구, 적당한 시간에 푹푹 휴식을 하면서 물 (끓인 물)도 약간씩 마시는 것이 좋단다.

일동—잘 알았어.

꼬마 의사—그럼 모두가 위생 규칙을 잘 지켜 오늘 순돌이처럼 더위를 먹지 않도록 주의하자.

홍길동 (제7회)

신 구 현

(78) 할아버지는 아낙네들에겐 농사를 짓게 하고 어린이들에겐 글과 무예를 열심히 배우게 하고 늙은이들에겐 갈과 활과 창을 만들거나 산에 가서 약을 캐게 하는 등 도화동 살림살이를 멋지고 흥겹게 꾸려 나갔습니다.

(79) 팔 도로 흩어진 여덟 장수들은 《활빈당》 행수 홍 길동의 이름을 가지고 눈부신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대낮에 각각 수백 명씩 거느리고 다니면서 지주와 악질 관리놈들을 처단하고 창고를 털어 가난한 백성들을 도우며 각도에서 서울의 왕과 량반들에게 보내는 물건들을 모조리 빼앗아 백성들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팔도의 지주와 악질 관리놈들은 벌벌 떨었으며 밤에는 다니지도 못 하였고 잠 들 수도 없었습니다.

홍감이가 활동하는 경상도가 더욱 그러했습니다.

(80) 팔 도 감사들은 왕에게 이런 사실을 글로 써서 올리였습니다. 왕은 크게 놀라 포장들을 불러 놓고

《아무리 신기한 놈인들 어찌 한 몸이 팔도에 있어 한날 한시에 도적질을 하랴. 이는 심상한 도적이 아니라 잡기 어렵거니 좌우 포장은 즉시 군사를 풀어 그 도적을 잡으라.》고 호령하였습니다.

* 포장—리조 때 소위 죄인을 잡는 기관인 포도청의 우두머리인데 좌포장과 우포장이 있었다.

(81) 이 때 우 포장 리 흡이 쉰 목소리로

《제가 비록 재주 없사오나 그 도적을 잡아 올리리니 근심 말으소서, 조그마한 도적을 잡고자 좌우 포장 다 출동할 필요가 있사오리까.》

하고 장담하였습니다.

왕은 만족하게 여기고 즉시 경상도로 떠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82) 수 많은 병졸들에게 아무 날까지 문경에 모일 것을 약속한 리 흡은 선비의 옷차림으로 하인 세 사람을 데리고 떠나 열흘만에 문경 새재 령마루에 이르렀습니다. 문경 고을이 가물가물 바라다 보이였습니다. 잠간 쉬노라니 나무'군이 나무를 잔뜩 해지고 노래를 부르며 오솔'길을 내려 가는 것입니다.

새가 새가 모여 든다.
온갖 새가 모여 든다.
문경 새재 박달나무
륙모 방망이 끌망에 품고
온갖 잡새가 모여 든다.

(83) 하도 수상스러워 리 흡은 하인들에게 나무'군을 잡아 오라고 호령하였습니다.

하인들은 잡으려고 그 뒤를 따랐으나 나무'군은 오도 간 데가 없어 그냥 돌아 왔습니다. 리 흡은 그것도 잡지 못 하느냐고 노발대발하였습니다. 그는 어쩐지 마음이 불안스러웠습니다.

(84) 리 흡이 삼십 리 고개'길을 내려 왔을 때는 어둑어둑할 때였습니다. 문경은 엎드리면 코가 닿 데입니다. 그러나 리 흡은 밤'길이 무서워 주막을 찾아 들었습니다. 바로 이 때였습니다. 말방울 소리가 왈랑왈랑거리더니 몸이 건장하고 얼굴이 끌끌한 젊은이가 들어 와 깍듯이 인사를 하였습니다.

(85) 소년은 문득 한숨을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소생이 비록 시골에 묻혀 사오나 나라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홍 길동이란 도적이 팔 도로 다니며 작란하오매 인심이 소란하거늘 이 놈을 잡지 못 하니 실로 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리 흡은 반기여 말하였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그대의 마음 기특하도다. 그대 건강하고 힘꼴도 있음직 하니 나와 한 가지로 그 도적을 잡음이 어떠하뇨?》

소년은 쾌히 승락하고 래일 아침에 그윽한 곳에 가서 힘내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86) 리 흡은 일찌기 일어 났습니다. 벌써 소년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리 흡은 소년을 따라 하인들을 데리고 산'골짜기로 들어 갔습니다.

소년은 깎아지른듯한 수백'길 절벽 우에 도사리고 앉더니만 힘을 다하여 자기를 두 발로 차 떨구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놀리는 것만 같아서 리 흡은 화가 상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괘씸한 놈 죽어 봐라 하고 힘을 다하여 두 발로 찼습니다.

소년은 돌아 앉으며 엄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대 실로 장사로다. 내 여러 사람을 시험하되 나를 움직이게 하는 자 없더니 그대 처음으로 내 오장이 울리게 하는도다. 그대 나를 따라 오면 길동을 잡으리라.》

(87) 리 흡은 완전히 기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길동을 잡아 준단 말에 혹하여 소년을 따라 첩첩 산중으로 들어 갔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소년은 리 흡을 돌아 보며

《여기서 머잖은 곳에 길동의 소굴이 있는지라 그대 여기서 잠간 기다리라.》 하고 수림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88) 리 흡은 의심도 들었으나 이왕 온 바에야 기다려 보자고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때였습니다. 고함 소리와 함께 붉은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인 군졸들이 산'골짜기를 쏜살 같이 달려 오는 것입니다.

리 흡은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으나 군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네 포장 리 흡이냐? 무슨 원쑤가 졌기로 우리 장군을 잡으려 하는고, 네 죽음을 면치 못 하리라.》

리 흡은 꽁꽁 묶이여 어디론지 갔습니다.

(89) 리 흡이 간신히 정신을 차려 보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크고 화려한 궁전 안에 와 있는데 붉은 수건을 쓴 숱한 장수들이 좌우에 줄지여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도화동이라는 것을 리 흡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90) 리 흡은 정신을 가다듬어 《소인은 천한 사람으로 죄 없이 잡혀 왔으니 살려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애걸복걸하였습니다.

궁전 한복판 높은 곳에서 껄 껄 껄 웃음 소리가 나더니

《이 사람아, 나를 자세히 보라. 나는 곧 활빈당 행수 홍 길동이다. 그대 나를 잡으려 하매 내 나무'군과 소년으로 변장하고 그대를 이 곳에 인도하여 우리 활빈당의 힘과 뜻을 보이게 함이다.》라고 꾸짖었습니다.

(91) 리 흡이 간신히 머리를 들고 보니 길동을 잡아 준다든 소년이 틀림 없습니다. 리 흡이 벌벌 떨고 있노라니 길동은 결박한 것을 풀게 하고 술을 따라 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부질 없이 다니지 말고 빨리 돌아 가라. 나를 보았노라 말을 냈다간 그대 큰 벌을 받을 것이니 명심하라.》

몇 잔 술이였지만 리 흡은 잔뜩 취하고 말았습니다.

(92) 술에서 깨여 나서 정신을 진정했을 때 리 흡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이 아니라 가죽 부대 속에 그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간신히 부대를 끌러 머리을 내밀고 보니 가죽 부대가 서울 북악산 나무'가지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대를 벗어 던지고 나무에서 내려 와서 자세히 살펴 보니 딴 나무'가지에 가죽 부대 셋이 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차례로 부대를 내려서 끌러 보니 데리고 다니던 하인들입니다.

리 흡은 해 지는 것도 모르고 북악산 꼭대기에 장승과 같이 서 있었습니다.

(동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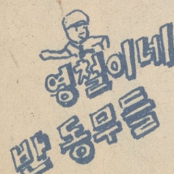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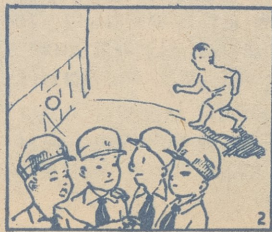
잊지 않아요

어깨동무 나란이 학교 갈 때나
책상에 마주 앉아 공부할 때나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아요.
헐벗고 굶주리는 남녘 땅 동무들을.

원수님이 주신 새 교복 입고
손목 잡고 즐거이 춤 출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아요.
깡통 든 남녘 땅 동무들을 생각해요.

책상도 없이 맨 땅에 엎드려
남녘 땅 동무들은 공부한대요.
겨울에는 칼바람에 떨고
여름에는 비'바람에 떤대요.

행복하고 즐거울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그들을 생각해요.
두 주먹 틀어 쥐고 웨쳐요.
《미제야 이 땅에서 당장 물러 가라!》고,

평안북도 박천군 청산 중학교 단 **신 철**

작문

오빠의 사진

지난 해 여름 나는《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으로 견학을 갔습니다.

분단 동무들과 함께《영웅관》에 들어 선 나는 저도 모르게《아, 오빠!》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어느 새 알아 보았는지 분단 동무들도 나를 둘러 싸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언젠가 분단 지도원 선생님이 리 기진, 리 영흡, 주 명웅 아저씨들이 우리 북창군의 영웅이라는 것을 알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 중 리 기진 영웅은 우리 오빠인 것입니다. 앞가슴에 번쩍이는 공화국 영웅 메달과 국기 훈장, 군공 메달, 모범 군인 휘장이, 나의 앞가슴에 빛나는 중앙 모범 소년단원 휘장, 모범 분단 휘장을 마주 보며 반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유리 액틀 속에 있는 오빠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리였습니다. 그것은 원쑤놈들과의 싸움에서 굴할 줄 모르고 위훈을 떨친 영웅 오빠의 영원한 웃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볼수록 용감해 보이는 오빠! 나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줄을 몰랐습니다.

나는 동무들과 함께 붉은 수첩을 꺼내여 오빠의 사진 아래의 설명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저격수로서 적 150 명을 단숨에 쓰러 눕혔고 달려 드는 적 땅크 밑으로 기여 들어 가 6 대를 뒤집어 놓은…》

나는 가끔 수첩을 꺼내 놓고 이 글을 읽어 봅니다. 그 때마다 새로운 힘과 용기가 부쩍부쩍 솟습니다.

나는 학습과 소년단 생활을 잘 하여 영웅 오빠처럼 용감한,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참된 전사가 되겠습니다.

인간 백정 미국놈들에게 희생된 아버지와 형님의 원쑤를 몇 천 배 갚고야 말겠습니다.

그리하여 당과 원수님의 크나큰 품'속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자라나는 이 행복한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조국을 지킬 것을 몇 번이고 다짐합니다.

평안남도 북창군 광로 중학교 중등반
제 2 학년 **리 윤숙**

(동 시)

바다는 좋아요

언제나 쾅쾅
기슭을 치고
언제나 쿵쿵 가슴 울리는
바다는 좋아요.

먼 바다에서 돌아 오는 발동선도
포구에 닻을 내리는 고기'배도
언제나 풍어기 휘날리는
조국의 바다는 좋아요.

가없이 넓은
아름다운 바다
고기떼 설레이는
조국의 바다…

붉은 넥타이 날리며
학교 길을 걸을 때마다
뛰여 들고픈 조국의 바다
우리는 이 바다의 정복자 될래요.

함북 영안군 량화 중학교
2 학년 **최 창환**

(동 시)

즐거운 등산

해'빛이 쨍쨍 내리쪼이고
길도 험하고 가파로운데
산으로 산으로
우리는 올라 갑니다.

지난 해보다
키도 자라고 몸도 자랐지만
즐거운 등산을 떠난
우리의 마음 더욱 붉게 자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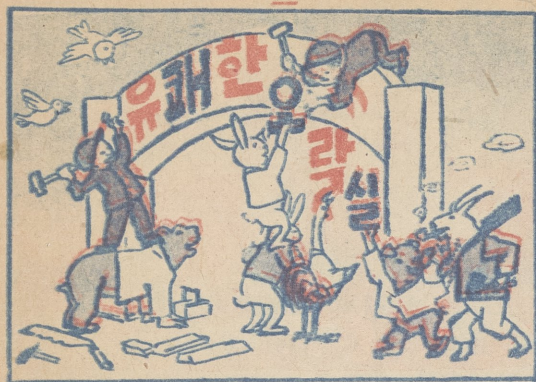
한 걸음, 두 걸음…
오를수록 새 힘이 솟습니다.
한 포기의 풀, 한 그루의 나무도
우리를 반겨 잎을 흔듭니다.

동무들아! 용기를 내자.
발'걸음 다그치자!
저기 산마루가 보이는구나
우리의 승리가 보인다.

벌레 울고 산'새 우짖는
저 산'줄기를 타고 다니며
갖가지 식물도 채집하자!
여름의 하루를 보람 있게 보내자!

황해북도 신계군 구락 중학교 3 학년
홍 기홍

현상 문제

그림과 같이 생긴 물통이 있습니다. 물통 마개를 열어 놓았을 때 처음 흘러 내리는 물의 량과 1 분, 2 분, 3 분…시간이 흐름에 따라 흘러 내리는 물의 량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문학 놀음 몇 가지

이 놀음은 우리들의 지식을 넓히며 지혜를 발전시키며 새로운 어휘를 많이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희이다.

☆ 꼬리 글'자 맞추기

노는 방법—유희자들이 빙 둘러 앉는다.

맨 처음 누가 먼저 임의의 단어를 부른다. 그러면 다음 사람부터는 그 단어의 꼬리 글'자에 맞추어 다른 단어를 재빨리 불러 나간다. 그러다가 막히는 동무는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읊거나 우스개를 피우거나 한다.

례를 든다면 맨 먼저 동무가 《설파》라고 했다면 다음 동무는 《파》자에 꼬리를 맞추어 《파자》 그 다음은 또 《자동차》 등으로 꼬리를 이어 가는 것이다.

새 단어 만들기 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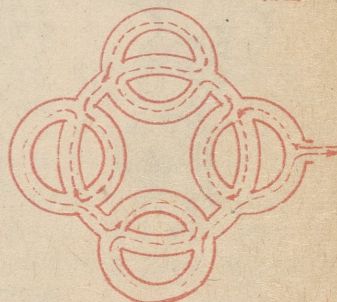
이 놀음 역시 새로운 어휘를 많이 알게 하는 유희이다.

노는 방법—유희자들은 빙 둘러 앉는다. 누가 먼저 문제를 낸다. (미리 유희 책임자를 정할 수도 있다.)

례하면 유희 책임자가 《사회주의 제도》라는 단어를 내놓는다. 그러면 차례로 돌아 가면서 우의 다섯 자 중에서 어느 글'자던지 하나를 리용해서 새로운 단어를 생각해 낸다.

례를 들면 《사회》, 《회화》, 《주권》, 《의회》 등 자기가 아는 대로 새 단어를 만들어 낸다. 그러면 유희 책임자는 그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는다.

다음 동무는 먼저 동무가 말하지 않은 또 다른 단어를 부른다. 이래서 남이 대지 못한 새로운 단어를 가장 많이 부른 동무가 승리한다.

☆ 4 호 현상 문제 해답

☆ 4 호 현상 문제 당선자

평양시 맹천 중학교 리 효방
함북도 경성군 장평 중학교 리 영준
함남도 단천군 금봉 중학교 최 범용
량강도 삼수군 삼수 중학교 강 복녀
자강도 화평군 화평 중학교 리 창순
평북도 동림군 청강 중학교 조 춘섭
강원도 안변군 중앙 중학교 최 기언
황남도 은률군 원당 중학교 정 헌

어느 달이 큰가요?

동무들은 달이 크고 작은가를 알아 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동무들의 주먹을 내들어요. 주먹의 마루는 큰 달을 가리키고 골은 작은 달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마루가 1월 (크다)이라면 다음의 골은 2월 (작다)이고 두 번째 마루는 3월…이런 방법으로 차례로 헤여 나가면 됩니다. 마지막 손'가락 마루에 와서는 두 번 꼽고 다시 돌아 오면서 헤면 됩니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3년 제 7 호 (총 165 호)
1963년 6월 25일 인쇄
1963년 7월 1일 발행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ㄱ—330301 값 25 전

이 유희는 실내나 또는 야외 나무 그늘 밑에서 흥미 있게 할 수 있는 것인 데 모두 만들어 해 봅시다.

유희 인원수는 8 명이다.

△ 준비품

나무공 1 개
유희 기구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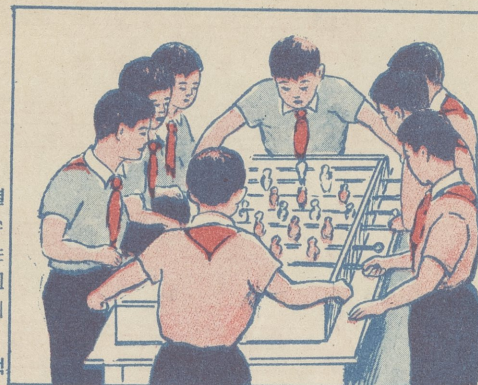
유희 기구는 (그림 1)과 같이 특별한 구멍을 통하여 마음 대로 돌릴 수 있고 또 좌우측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는 철선이 량 벽에 꽂혀져 있다. 그리고 그 철선에는 축구 선수 인형들이 고착되여 있다.

이 인형들은 두 편으로 나누어 적색과 청색을 칠한다.

인형들의 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적색 인형들은 제 1 철선에 1 개, 제 2 철선에 2 개, 제 4 철선에 3 개, 제 6 철선에 4 개 그리고 청색 인형들은 제 8 철선에 1 개, 제 7 철선에 2 개, 제 5 철선에 3 개, 제 3 철선에 4 개씩 배치한다.

△ 유희 방법

유희자들은 네 사람씩 한 팀으로 하여 두 개 팀으로 나누어서 유희 기구의 량쪽에 선다.

다음에 각 팀들은 자기의 꼴문과 인형색을 선택하고 각자가 자기 편의 인형들이 달려 있는 매개 철선 옆에 한 사람씩 선다.

유희가 시작되자 중앙 위치에 놓여 있는 공을 한 축구 선수 인형이 맨먼저 찬다. 다음에는 이에 뒤'이어 다른 축구 선수 인형들이 그 공을 받아 차게 된다.

여기에서 매개 유희자들은 철선을 좌우측으로 이동시키거나 또는 그를 회전시키면서 인형들로 하여금 축구장의 임의의 장소에서 공을 받아 차면서 상대방의 꼴 문에 공을 차 넣도록 꼴문으로 공을 몰아 간다.

△ 경기 규칙

①공을 맨먼저 찰 수 있는 권리는 제비 뽑기에 의하여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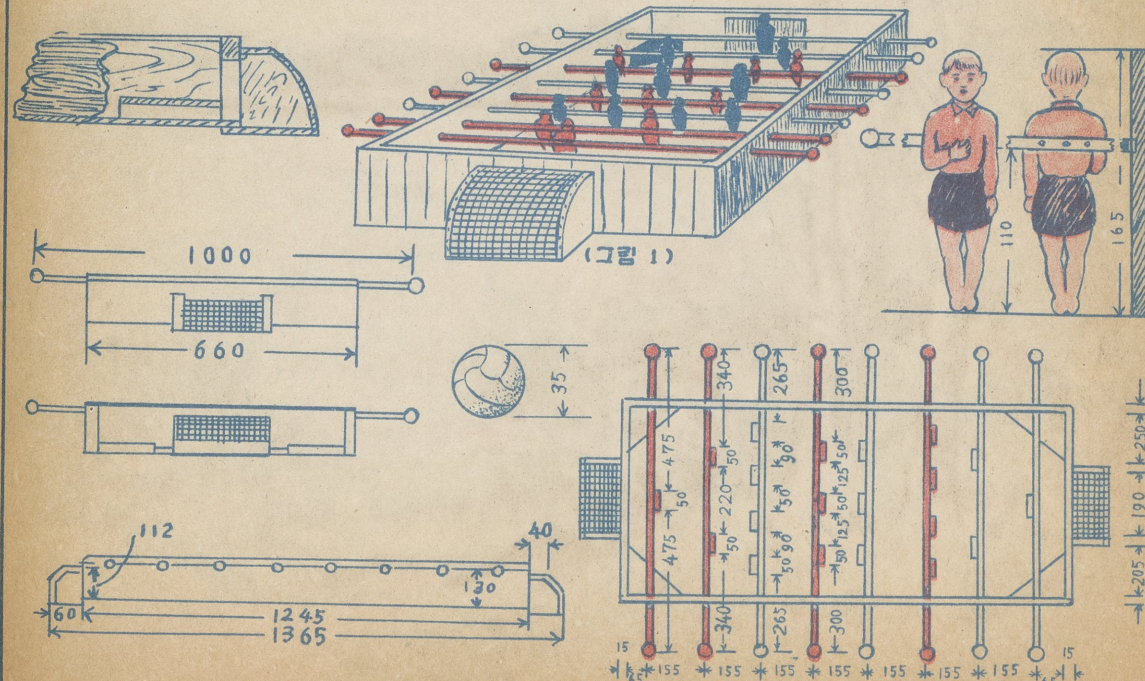
②경기 시간은 20~30 분으로 하며 10~15 분이 지나면 중간 휴식하고 그 후에 량 팀이 장소를 바꾼다.

③지정된 시간 내에 꼴을 보다 많이 넣는 편이 이긴다.

△ 기구 제작에서 주의할 점

①유희 기구는 될수록 굳은 나무로 만들며 함 밑에는 합판을 대고 록색칠을 하고 거기에 보통 축구장과 같이 백색으로 선을 긋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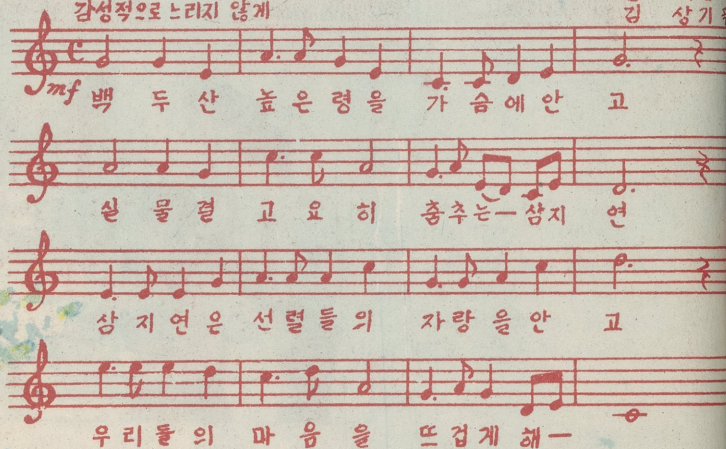
②축구 선수 인형은 10~12 밀리메터의 두터이를 가진 합판을 베여 만들고 뼁끼로 색칠을 한다.

③함 구석에는 그리 높지 않은 널판으로 삼각판들을 세워 놓는다.

삼 지 연

김 혜관 시
김 상기 곡

감성적으로 느리지 않게

mf

백 두 산 높 은 령 을 가 슴 에 안 고
실 물 결 고 요 히 춤 추 는— 삼 지 연
삼 지 연 은 선 렬 들 의 자 랑 을 안 고
우 리 들 의 마 음 을 뜨 겁 게 해—

(2) 원수님이 거느리신 유격대원들
조국 땅에 입 맞추며 마시던 샘물
삼지연의 맑은 물 우리도 떠서
원수님을 생각하며 마시였어요

(3) 우리들의 붉은 마음 가슴 속에도
넘실넘실 춤을 추는 삼형제 련못
삼지연은 원수님의 모습을 안고
천년만년 무궁토록 넘쳐 있어요